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아동의 SSI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

A Study on Color Preference According to
SSI Personality Types of Children
- for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진 영 지

2015년 8월

석 사 학 위 논 문

아동의 SSI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

A Study on Color Preference According to
SSI Personality Types of Children
- for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진 영 지

2015년 8월

아동의 SSI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

A Study on Color Preference According to
SSI Personality Types of Children
- for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

지도교수 양 경 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진 영 지

2015년 5월

진 영 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년 6월

목 차

국문 초록	iv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4
1. 색채의 이해	4
2. 아동의 색채 인지 발달 과정	13
3. 색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
4. 아동의 성격과 색채 선호에 관한 선행연구	23
5. 융의 성격유형론	34
6. SSI 성격유형검사	37
III. 아동의 SSI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 분석	47
1. 연구 대상 및 기간	47
2. 연구 방법 및 절차	48
3. 아동의 SSI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 분석 결과	56
IV. 결론	66
참고 문헌	70
ABSTRACT	72
부 록	75

표 목 차

〈표 II-1〉 색채의 연상과 상징	6
〈표 II-2〉 먼셀시스템의 기본 10색상	10
〈표 II-3〉 로웬펠드의 색채 인지 발달단계	15
〈표 II-4〉 색채 선택에 따른 일반적인 색채심리	27
〈표 II-5〉 아사리의 '무조건 테스트'에 나타난 색채의 심리적 생리적 의미	31
〈표 II-6〉 외향형 - 내향형의 일반적인 성격특성	38
〈표 II-7〉 실제형 - 상상형의 일반적인 성격특성	39
〈표 II-8〉 사고형 - 감정형의 일반적인 성격특성	40
〈표 II-9〉 조직형 - 유연형의 일반적인 성격특성	41
〈표 III-1〉 연구대의 성별 분포	47
〈표 III-2〉 성별에 따른 8가지 성격유형 분류	47
〈표 III-3〉 외향형-내향형에 따른 명화 도안	57
〈표 III-4〉 실제형-상상형에 따른 명화도안	57
〈표 III-5〉 사고형-감정형에 따른 명화도안	58
〈표 III-6〉 조직형-유연형에 따른 명화도안	58
〈표 III-7〉 외향형-내향형에 따른 만다라도안	60
〈표 III-8〉 실제형-상상형에 따른 만다라도안	60
〈표 III-9〉 사고형-감정형에 따른 만다라도안	61
〈표 III-10〉 조직형-유연형에 따른 만다라도안	61
〈표 III-11〉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색채 선호 결과	62
〈표 III-12〉 8가지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 결과	63

그림 목 차

[그림 II-1] 먼셀의 색체계	9
[그림 II-2] 먼셀의 20색상환	12
[그림 II-3] 먼셀의 색입체	12
[그림 II-4] 오방색의 개념도	13
[그림 II-5] 색채 지각과 인지 과정	14
[그림 III-1]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 I	51
[그림 III-2]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 II	51
[그림 III-3]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 III	52
[그림 III-4]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 IV	53
[그림 III-5]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 V	54
[그림 III-6]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 VI	55
[그림 III-7]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 VII	55
[그림 III-8] 명화도안	59
[그림 III-9] 만다라도안	59

국 문 초 록

아동의 SSI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에 관한 연구

진 영 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경 식

본 논문은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성격유형과 그에 따른 색채 선호와의 관계를 분석 연구한 내용이다. 아동에게 있어서 색채의 선택은 잠재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색채는 인간의 심리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색채와 성격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색채심리에 관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지만, 다양한 성격에 따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아동 개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아동의 다양한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초등학교 6학년 남·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SSI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분류된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색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가 성격이 형성된 시기이며 색에 대한 개념과 인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동을 다양한 성격유형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최근 아동들이 색에 대해 어떠한 성향을 보이는지 알아보았으며 효

과적인 미술교육의 방향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색채 선호 결과, 남자 아동은 파랑, 무채색, 노랑을, 여자 아동은 파랑, 노랑, 자주를 가장 두드러지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성별의 구분 없이 거의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색상은 파랑과 노랑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에 따른 선호 색채와의 관계는 8가지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 경향으로 분석해보았다.

외향형과 내향형 아동의 관계에서, 개인의 에너지와 초점이 외부로 향하는 외향형의 아동일수록 대체로 파랑, 무채색, 노랑, 자주 등의 색채를 선호하고, 에너지를 받고 내부에 집중시키는 내향형 아동일수록 파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형과 상상형 아동의 관계에서는 사실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집중하는 실제형 아동일수록 파랑, 노랑을 선호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좋아하거나 이론 및 포괄적인 사항들에 집중하는 상상형 아동일수록 파랑, 무채색, 빨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형과 감정형 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사고형 아동일수록 파랑, 무채색을 선호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감정형 아동일수록 파랑, 노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과 유연형 아동의 관계에서는 생활 속에서 구조와 조직을 부여하기를 좋아하는 조직형 아동일수록 파랑, 노랑, 자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에서 자유로움과 융통성을 가지려고 하는 유연형 아동일수록 파랑과 무채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은 성별에 따른 색채 선호에 차이가 있었고, 성격유형과 색채 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아동의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아동의 선호 색채는 아동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이유로 나타나는 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색채, 색채 선호, 색채심리, 성격유형, SSI 성격유형검사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다원화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개인적, 혹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학과 문화의 발달로 우리는 풍요롭고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당연히도 우리의 행복지수 또한 예전에 비해 높아졌을 거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복지수는 과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현대사회는 다원화된 삶의 양식과 가치관 속에서 심리적 혼란을 겪으며 청소년의 비행, 학교폭력, 자살 등 반인륜적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아동들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발견할 목적의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아동의 내면을 이해하는 방법의 한 가지로는 색채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색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대부분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고, 색채가 가진 영향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무시한 채 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각자의 기억 속에 가장 인상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감정에 따라 특정한 색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이러한 색채의 신호는 단순한 개인의 기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몸과 마음의 상태나 성격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문화적인 의식도 엿볼 수 있게 한다. 색채는 인간의 무의식에서부터 잠재되어 온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다르게 표출되는데 이는 특정한 사물을 선택하거나 옷을 선택하여 입을 때 모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정적인 면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처럼 색채는 누구나 접하고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리적, 심리적인 면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정서적 능력의 발달에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와 영상 매체의 출현에 따른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수천 가지의 색들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색채가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일찍이 영상 매체에 눈을 떠 유아기부터 색채에 대한 감각을 익힌 아동들은 색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색채를 인지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줄 안다. 이에 색채의 사용과 소재 선택의 폭이 넓어져 다양

한 시각으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한다. 아동은 어른들과는 달리 생각과 감정을 글이나 말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므로 대신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색의 사용으로 표현한다. 또한, 무의식중에 색상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아동들에게 색 표현은 잠재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있는가를 색채 표현을 통해 나타낸다. 나이가 어릴수록 본능에 솔직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색채 표현을 하므로 이를 통해 아동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의 그림에는 실제 대상이나 환경에 대한 시각적 관찰에 의한 색채 표현보다는 매우 주관적인 그들의 심리에 의한 색채 표현이 두드러진다.

처음의 아동화 연구 동향은 '아동은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린다.'고 믿고 인지 과정이나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아동은 본 것이나 아는 것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도 그린다.'는 가설을 두고 연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아동화가 아동의 사고와 정서, 공포와 욕구, 희망과 좌절 등 그들의 내적 세계를 투영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이야기한 아동의 점차 늘어가는 불안, 우울, 자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진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이에 따른 자유로운 색채 표현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아동들이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성격 및 심리상태의 부분 또한 파악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성격유형과 색채 선호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성격특성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색채 선호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개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그들을 위한 올바른 아동미술교육 지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즉 색채 선호와 성격 특성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급속도로 변해 가는 아동의 심리나 성격특성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하는 연구가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아동의 SSI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연구 대상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초등학교 6학년 남·여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연령별, 성별, 학교별로 구분하여 전국의 시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 실시하여 결과를 논의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통계 결과이겠지만 여러 가지의 제한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아동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성격이 형성된 시기이며 색에 대한 개념과 인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색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의 색채 인지 발달 과정의 단계별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아동의 성격과 색채 선호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룬 문헌들을 수집·분석 및 정리하여 본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성격에 대한 이론을 파악하고 한국가이던스에서 제작한 학생유형검사지(SSI)를 사용하여 아동의 성격유형을 분류한다.

넷째, 아동의 색채 선호를 조사하기 위해 명화도안, 만다라도안, 의복도안을 제시하여 선호하는 색채를 표현하도록 한다. 그리고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프로그램으로 색채를 분석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성별, 성격유형별 등으로 세분화시킨 후 분석한다.

다섯째, 아동의 성격유형에 따른 선호색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을 파악하여 성격유형과 선호 색채와의 관계를 검증하고 앞으로의 색채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색채의 이해

가. 색채의 기능

색이란 한자어로 빛 색(色)을 뜻하며 이는 빛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하고 인식 되는 것이다. 즉 색은 물리적인 빛을 눈으로 지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빛에 의해 굴절되고 반사된 사물은 인간의 시각에 감지되는데, 이 중 색은 인간의 시각이 60% 이상 의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색채(色彩)란 인간의 눈에 들어온 빛을 두뇌가 경험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 색이 사물을 판별하는 물리적 현상과 관계가 깊다면 색채는 심리적 현상이 추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각 개인이 같은 빛을 통해 색을 지각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심리적인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색채는 이 '물리적 의미의 색'과 '심리적 의미의 색'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한국색채연구소, 2006, p. 11).

색채는 인간의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적 충동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며 표출시킨다. 그리하여 억눌려 있던 공포, 슬픔, 기쁨, 갈등 등을 외부로 불러내어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발달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색'에서 발견되지 않는 감성적인 느낌과 '색'이 인간에게 주는 느낌을 바탕으로 연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색채'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색채론”(Johann Wolfgang von Goethe, 2003)에 의하면, 색채는 인간의 미적·도덕적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인간 내면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즉 어떤 색은 인간에게 생기를 주기도 하며, 어떤 색은 침울하게 하고, 어떤 색은 기쁨을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긴장시키며 시원하게 풀어주며 색채는 인간의 정서를 불러일으켜준다.

이러한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색채 문제를 학교교육을 위해 특화시켜 바로 심도 있게 발전시킨 학자가 발도르프 학교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이다. “색채의 본




질”(Rudolf Steiner, 2014)에 의하면 슈타이너는 색채를 교육할 때 색채 그 자체로서 느낌을 통해 경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빨강과 노랑에서 따뜻한 느낌을, 초록과 파랑에서 차가운 느낌을 가진다는 식으로 색채를 내면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아동들이 도덕적으로 자극을 받도록 주장하였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적합한 색이 있어서 환경을 조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괴테와 슈타이너의 주장으로 보면, 색채는 아동의 사고와 감성의 발달을 도모하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 색채의 연상과 상징

색채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는 연상과 상징이 있다. 연상은 그 색을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색채가 가진 감성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다. 이에 반해 상징이란 마치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것처럼 같은 색이라도 자신들만의 색채를 기호화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색채의 상징은 같은 색을 사용해도 의미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빨강의 연상 작용으로 흥분, 피, 금지, 위험을 떠올리지만 상징적으로는 혁명, 힘, 전쟁, 귀신의 퇴치 등에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 파랑의 경우 하늘, 시원함, 젊음, 안정, 미래 등을 쉽게 연상하게 된다. 이것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일반적인 문화권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범주이다. 그러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절, 기독교, 악마, 서쪽, 바다의 신, 부활 등을 의미한다. 노랑 역시 일반적으로 어린이, 부귀, 약함, 친절함 등을 연상하지만 상징적으로는 반군, 육체적 사랑, 거짓, 치욕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 즉 시대 상황과 사회 환경에 따라 상반된 의미의 상징이 될 수 있다(문은배, 2011, p. 266).

〈표 II-1〉 색채의 연상과 상징(한국색채연구소, 2006, p. 35)

색채	색명	연상과 상징
	빨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색채로 정지, 금지 뜻이 강하며 방화(防火), 소화기, 경보기, 긴급정지에 쓰인다. · 빨강은 색채 중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감정을 고조시킨다. · 심리적으로 빨강은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활기와 야망을 갖게 한다. · 빨강에 흰색을 섞으면 분홍이 되는데, 이때는 파스텔 톤으로 부드럽고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주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난색이며 역동, 활력, 만족, 적극 등을 상징한다. · 주황은 식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산업현장에 안전색채로 사용된다. · 주황에 흰색을 섞으면 밝은 베이지색이나 갈색 등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는 은은하고 따뜻한 자연적인 느낌을 준다.
	노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채색 중 가장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으로 명량, 생동감, 즐거움을 준다. · 안전색채에서는 주의의 뜻을 가지며, 노랑과 검정의 줄무늬로 된 색채는 명시도가 가장 높아 눈에 가장 먼저 띈다.
	초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속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색으로 평화, 안전, 휴식을 상징한다. · 안전색에서는 안전과 진행 및 구급, 구호의 뜻을 갖는다. · 심리적으로 초록은 스트레스와 격한 감정을 차분하게 도와주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파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기호도가 가장 높은 색으로 상쾌함, 신선함, 물, 차가움을 나타낸다. · 한색의 대표적인 색으로 차가운 느낌과 진정의 효과를 가져 오므로, 심신의 회복력과 신경계통의 색으로 사용된다.

	<p>보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강과 파랑이 혼합된 색으로 우아함, 화려함, 풍부함, 고독, 추함 등의 다양한 느낌을 준다. · 왕실의 색으로 사용된 색으로 품의 있는 고상함과 함께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게 한다. · 푸른 기운이 많은 보라는 장엄함, 위엄 등의 느낌을, 붉은 기운이 많은 보라는 여성적, 화려함 등의 느낌을 준다.
	<p>흰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하며 아무런 색이 없는 무색이다. · 흰색은 감정이나 사고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해방감을 준다.
	<p>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은 모든 빛을 흡수한 색이다. · 검정을 유채색과 함께 사용하면 보다 뚜렷이 부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편안함, 보호받는 느낌, 신비감을 준다.

다. 색경험의 단계

프랑크 만케(Frank H. Mahnke)는 ‘색, 환경 그리고 인간의 반응(Color, Environment and Human Response)’에서 색경험의 6단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색경험은 색채의 인식과 전달 과정에서 관찰되는 색채 관찰자의 반응이다.

1단계는 생물학적 반응의 단계이다. 색채보다는 생물의 생존과 관계되는 가장 기초적인 반응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식물의 앞에서 관찰되는 녹색 엽록소의 색채는 광합성을 위해 녹색 외의 색채를 흡수하고 녹색은 반사한다. 또는 포자를 터뜨리기 위해 꽃가루의 색은 새나 곤충을 유혹하기 좋은 화려한 색채로 되어 있다. 식물의 열매가 녹색이었다가 씨가 충분히 익으면 빨간색 또는 녹색과 구별되는 유채색으로 변화하여 새나 인간으로 하여금 씨를 퍼뜨리기 좋도록 구분짓는다. 이러한 동물의 보호색이나 과시를 위한 색채들이 모두 1단계 반응에 해당한다. 이 단계는 조정되기 힘든 단계로, 색채로 전달되는 것은 기초적인 식별과 생물학적 에너지 보존 등과 관계를 가진다.

2단계는 집단 무의식으로 정의된다. 융(Carl Gustav Jung, 1875 - 1961)

의 심리학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은 일생 동안 축적된 개인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반응과는 별개인 정신의 일부이다. 태초부터 인간에게 전해져 온 체험의 기억들이 유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흔히 청색은 차가움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렸을 때 청색의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던 사람에게는 뜨거움의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 무의식이라면, 집단 무의식은 교육과 경험이 직접 지배하지 않는 최초의 인류로부터 경험되고 학습된 색채와 관련된 유전적 연상이다.

3단계 의식적 상징화 연상에는 일부 학습적인 면이 있다.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하늘과 물은 파랑, 불은 빨강, 자연은 초록이라는 1차적인 연상과 빨강은 혁명, 금색은 사치, 분홍은 사랑과 같이 감정과 관계된 2차적인 연상이 있다. 연상이 지역적·인종적 특성을 만들기도 하고, 범세계적인 공동의 연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문화와 건축에서도 공감을 얻는 색채의 서술에 사용되기도 한다.

4단계 문화적 영향과 매너리즘이란 문화나 단체 등의 특색이 되는 색의 연상이나 상징화는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다. 3단계의 연상과 구별되는 것은 지역적 특성이 강하고, 소속 단체에서 학습된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색채를 흑성과 연관 지어 생각하거나 방위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 등이다. 한국의 전통 오방색, 종교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상징색 등이 이 단계에 속한다. 또한 지역을 특정 짓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5단계는 시대사조, 패션, 스타일의 경향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사용된 색채의 흐름은 계속 변화하며 그 중 일시적인 색채의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상품의 판매 방법이 발달하면서 시대사조를 따르게 되고 중심 색채를 자주 변화시키며 지역성과 인종을 초월하기도 한다. 흔히 역사적 유물과 유적에서 사용된 색채를 중심으로 제작된 연대를 측정하기도 한다. 색채가 적용된 대상과 제작의 용이성 등이 반영되어 그 변화의 기간이 다르게 보이지만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색채의 표현 수단이 발달하면서 표현의 범위가 넓어졌다. 지역성, 특정 문화 집단의 경향보다는 시대적인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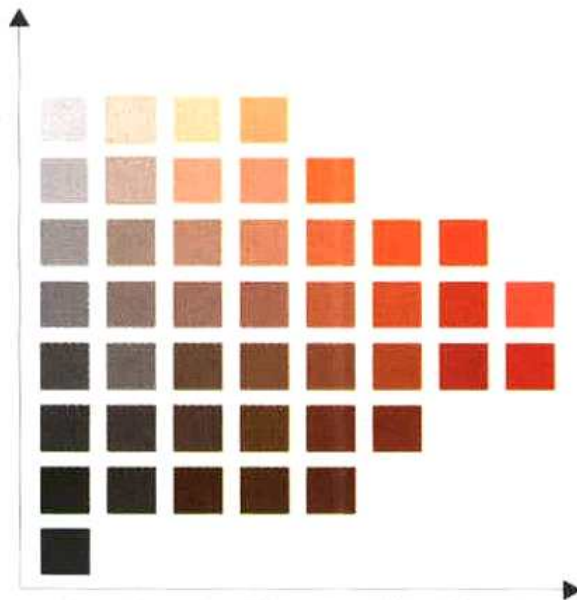
6단계인 개인적 관계에서는 보편타당한 색채의 경향보다는 개인적인 호감이나

협오감이 작용한다. 즉 특정한 이유나 객관성보다는 개인적인 기호에 따른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향일수도 있고 교육이나 체험을 넘어선 것 일수도 있다(문은배, 2011, p. 18-21).

라. 먼셀의 색체계

색을 객관적인 수치로 체계화한 여러 사례들 중 20세기 초 먼셀(Albert Henry Munsell, 1858-1918)에 의해 개발된 색채 표기 시스템인 먼셀의 색체계(Munsell System)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색채연구가이자 화가인 먼셀에 의해 창안된 이 체계는 색의 3속성인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를 시각적으로 고른 단계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배열한다. 색에 대한 이 세 가지 속성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정렬된 크기 척도로 나타나고, 이 크기 척도는 표준 광원과 관측조건 하에서 색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기술하기 위한 매개 변수들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도 한국공업규격(KS A 0062)으로 지정하여 표준색체계로 사용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먼셀의 색체계로 위로 갈수록高明도, 아래로 갈수록 저명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채도, 왼쪽으로 갈수록 저채도이다.

[그림 II-1] 먼셀의 색체계



(1) 색상(Hue)

색상(Hue)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과 같은 언어로 표현된 색의 성질을 나타내며, 먼셀 시스템에서 색상환(Hue circle)을 이루고 있다. 색상환은 시각적으로 같은 간격을 갖는 5개의 주요색상(빨강 Red, 노랑 Yellow, 초록 Green, 파랑 Blue, 보라 Purple)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요 색상 사이에는 5개의 간색(주황 Yellow-Red, 연두 Green-Yellow, 청록 Blue-Green, 남색 Purple-Blue, 자주 Red-Purple)이 들어가 10개의 기본 색상을 이룬다.

먼셀 색상은 기호로 표기하는 방법은 인접한 두 기본 색상 사이를 크기 10으로 정의하여 5R, 8PB와 같이 각 기본 색상의 영문 이름 머릿글자와 숫자를 함께 써서 나타내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먼셀 색상의 기본 10색상에 대한 색상 기호는 다음과 같다.

〈표 II-2〉 먼셀시스템의 기본 10색상

색명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Red	Yellow-Red	Yellow	Green-Yellow	Green	Blue-Green	Blue	Purple-Blue	Purple
기호(H)	5R	5YR	5Y	5GY	5G	5BG	5B	5PB	5P	5RP

예를 들어, 5P와 5PB 사이에는 정수를 사용하여 표기되는 6P, 7P, 8P, 9P, 10P, 1PB, 2PB, 3PB, 4PB의 9개 색상기호가 있으며, 전체 색상환에는 시각적으로 고른 색채단계에 따라 10색상을 다시 10등분하여 정수로 표시되는 100개의 색상이 존재한다. 100개의 색상 사이의 간격은 시각적으로 같은 차이로 느끼도록 정렬된 것이다. 정수로 표시되는 두 인접한 기호 사이에 존재하는 색상은 소수점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하나의 색상은 1-10까지 10단계로 구분하며, 기준 색상은 5에 해당한다.

(2) 명도(Value)

먼셀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로 뉴트럴(Neutral) 색상(중성색)과 비교하여 같은 밝기를 갖는 뉴트럴 색상의 명도 단계로 표시한다.

먼셀 명도 단계는 10단계로 구분되는데, 이상적인 흰색(모든 빛을 반사하는 색)은 10으로, 이상적인 검정색(모든 빛을 흡수하는 색)은 0으로 나타내며, 그 중간의 회색은 0에서 10사이의 값을 갖는다. 즉 무채색을 기준으로 0-10까지 11단계로 나타낸다. 색상과 마뉘어져 있다. 숫자가 낮을수록 어둡고 숫자가 높을수록 밝으며, 명도단계에서 0은 찬가지로 먼셀 명도 단계는 사람 시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명도 단계 3과 4사이의 밝기 차이는 명도 단계 6과 7사이의 밝기 차이와 같도록 나완전한 검정, 10은 완전한 흰색으로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채도(Chroma)

먼셀 채도는 임의의 색상이 같은 명도를 갖는 뉴트럴 색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색의 순수한 정도 즉 순도라고 한다. 채도 단계는 뉴트럴 색상을 나타내는 0부터 색상(Hue)의 함량이 많아짐에 따라 시각적으로 일정하게 증가한다. 채도 단계에서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높은 수치의 채도는 샘플의 색상과 명도, 그 샘플을 만들어 내기 위한 컬러러นต์(colorant)에 따라 다르다. 무채색을 0으로 보고 숫자가 낮을수록 채도가 낮고 숫자가 높을수록 채도가 높다. 왼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져 가장 바깥색인 빨강이 채도가 가장 높은 순색이 된다.

(4) 색상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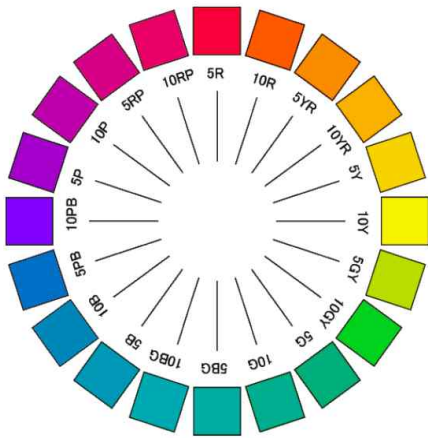
유채색을 나타내는 먼셀 기호는 H V/C(색상, 명도, 채도 순)로 나타낸다. 그 예로 5R 5/14는 5R의 색상, 명도 5, 채도 14의 수치를 갖고 있는 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정확하게 색을 나타낼 경우에는 소수점을 이용하여 2.8R 4.5/12.4와 같이 표기한다.

무채색(뉴트럴계)의 경우에는 숫자 앞에 N을 붙여 N5, N2.5와 같이 표기한다. 채도가 0.3보다 작은 색의 경우에는 무채색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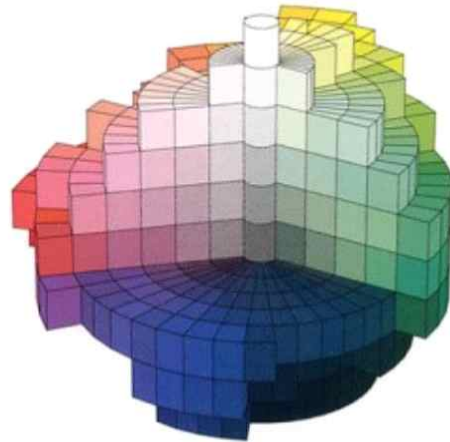
(5) 먼셀의 색입체

색상, 명도, 채도의 먼셀 스케일은 색입체나 색채 공간의 형태로 형상화될 수 있다. 가장 아래쪽의 black부터 white까지의 명도 단계는 색입체의 중심 세로축을 이룬다. 색상 단계는 명도축 주위에 원을 그리며 같은 시감 단계로 위치하고 있으며, 채도 단계는 중앙의 명도축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같은 시감 단계로 뻗어나간다(박지현, 2011, p. 7-8).

[그림 II-2] 먼셀의 20색상환



[그림 II-3] 먼셀의 색입체



마. 한국 전통 색채(오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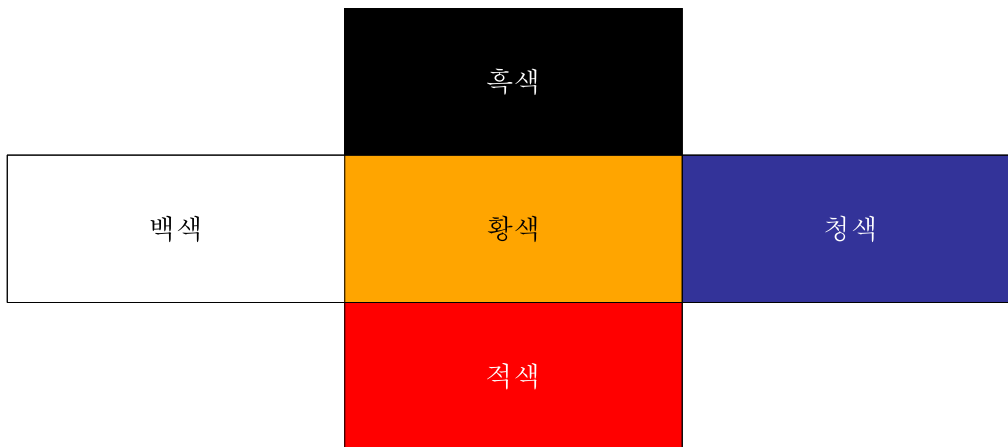
전통색이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색으로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서 사찰, 궁궐, 유물 등에 채색되었던 색을 말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양오행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적, 청, 황, 백, 흑 등으로 이루어진 오방색을 사용했다(한국인의 색채관은 이익이 「성호사설(星湖僊說)」에서 중국 「고공기(考工記)」의 오행에 따른 색상과 중간색의 생성을 해석한 데서 볼 수 있다. 서양에 빨강, 노랑, 파랑의 3원색이 있다면 오방색은 우리나라 전통색이다).

한옥의 벽, 기둥, 천장에 여러 가지 화려한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려놓은 단청은 우리나라 전통색의 화려함을 보여준다. 노랑 저고리에 빨강 치마, 색동저고리, 색 조각으로 만든 보자기 등 옷이나 장신구, 떡국의 오색 고명 장식 등에서

도 우리 고유의 색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색채연구소, 2006, pp. 78-79)

오방색의 상징은 다음과 같다. 청(木)은 동방의 정색으로 부활, 탄생, 창조, 생명, 소생을 상징한다. 백(金)은 서방의 정색으로 진실, 결백, 순결을 상징한다. 적(火)은 남방의 정색으로 태양처럼 왕성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흑(水)은 북방의 정색,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 황(土)은 오방의 중심색으로 우주의 중심에 해당하며 임금님만이 황색옷을 입을 수 있었다.

[그림 II-4] 오방색의 개념도



2. 아동의 색채 인지 발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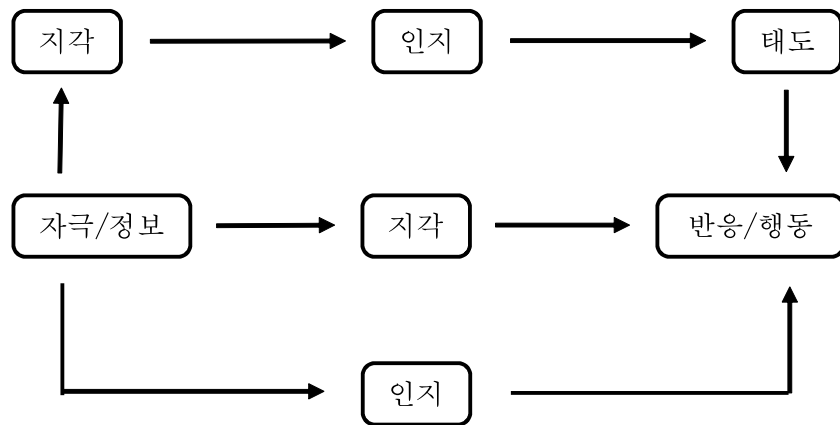
색채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영원한 만족과 희열을 준다는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의 주장과 색채는 인간의 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의 주장에서처럼 색채는 인간의 생명이며 두뇌에 강력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심리와 감정을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박경숙, 2002, p. 11).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그 성장 과정마다 외면의 육체적인 특징과 내면의 정신적인 특징이 드러난다. 심리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때, 아동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는 다른 성장기에 비하여 많은 변화와 시련을 겪는 과정이 있어 매우 역

동적이다. 이러한 아동에게 있어 색채의 영향은 더 크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들의 특성과 본질적인 면을 심리학적인 발달 과정과 색채학적인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색채 지각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며 이 때 색은 시각적인 감각을 통하여 인식되어진다. 그에 따른 인식 과정은 자극-지각(색채의 지각)-인지-태도의 순이다. 색채의 지각과 인지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5] 색채 지각과 인지 과정(박은덕, 1990)



아동은 눈으로 읽혀지는 모든 것에 대해 지각하고 인지하며 그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시각적 인지 형태는 깊이의 인지, 형태의 인지, 상징적 기초의 인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색채 인지는 시각적 인지의 총체적인 인지를 의미하며 가장 민감하고 감성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은 시각적인 인지를 통해 가정환경의 분위기과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배워서 정서적으로 발달한다. 이것은 환경이나 어떠한 특정한 요소에 의해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론들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문화적, 사회적 환경의 질이나 수준, 개인차에 따라 단계별 또는 학년별로 동일시하여 지도하거나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단계별로 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며 모든 아동에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박경숙, 2002, pp. 11-12).

먼저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로웬펠드(Viktor Lowenfeld, 1903-1960)는 그의 저서 “Creative and Mental Growth”(Viktor Lowenfeld, W. Lambert Brittain, 1987)에서 색채와 심리적인 면과의 관계를 4단계로 나누어 특성을 논하였다.

〈표 II-3〉 로웬펠드의 색채 인지 발달단계

연령	색채 인지 발달단계
난화기 2-4세	<p>아직 색채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색을 보고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싶은 행동 자체의 원동력으로 낙서와 같은 그림을 그린다. 색채의 선택은 기계적이며 색채는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색채의 역할은 도화지와 자신의 표현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색은 유아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탐색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색채의 변화가 중요해진다.</p>
전도식기 4-7세	<p>이 시기의 아동은 대상의 고유색을 무시한 채 아동이 선호하는 색을 선택하여 대상과 연결 짓는다. 이러한 색채 선택은 심리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는 개별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아동은 도화지 위에 색을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색의 사용 자체를 즐길 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색의 구성과 자신의 정서적 관련 사이에 민감한 유대관계를 확립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적절한 색을 정해주거나 사용한 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유아들은 자기표현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p>
도식기 7-9세	<p>자연스럽게 색채와 대상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색은 더 이상 주관적인 경험이나 정서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같은 대상에 일정한 색을 정하여 반복해서 칠한다. 사과를 항상 빨강고 하늘은 언제나 파랗게 나타낸다. 이것은 아동의 사고과정이 지속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색채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

<p>여명기 9-12세</p>	<p>도식적인 색채에서 벗어나 특징 있는 색채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여러 색의 차이점에 대해 인식이 높아지나, 명암에 의해 색이 변화하는 효과나 색채 분위기가 나타내는 효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시기에는 스스로 경험과 성취를 통해 색채의 의미를 깨닫게 함으로서 색채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p>
<p>의사실기 12-14세</p>	<p>사실적 색채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관찰묘사에 의존하여 사물의 색과 같은 색을 칠한다. 색채는 환경의 색에 맞추려 한다.</p>

초등학교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과 색채 인지 발달 과정을 색채학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심리 발달적 측면과 색채 발달적 측면으로 구분지어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가) 저학년 단계(1-2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아동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일정한 개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과 판단이 생기면서 대상에 대한 자신만의 주관적인 형태의 틀이 생긴다. 이것을 도식이라고 하며, 도식은 아동이 표현을 통해 사람과 사물에 대해 도달한 개념이며 아동의 그림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1) 심리 발달적 측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 구체적인 사고활동을 하게 되고 투명화법이 등장하게 된다. 보통 7세부터는 색상의 구별이 가능하나 주관적 표현에서 객관적 사실 방향으로 변한다. 즉 외면과 내면, 정면과 측면 등이 동시에 표출되면서 사물을 보는 눈이 뜨였다는 의미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의적 표현보다는 개념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이다. 비교적 성장속도가 안정된 성장곡선을 보이는 이 시기는 신체발달에 비해 시지각(vision)의 힘은 크게 증진되어 시각기관의 발달이 거의 성인들의 상태에까지 성숙하게 된다(길태화, 2001, p. 9).

2) 색채 발달적 측면

이 시기의 아동은 자연스럽게 색채와 대상과의 관계를 발견한다. 색은 더 이상 주관적인 경험이나 정서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즉 사람을 그림 그림에서 아동은 명확한 개념에 도달하여 도식적인 면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아동이 그림을 그릴 때 공간을 표현하면서 환경의 일부로 자신을 경험하고 명확한 공간관계로 발달되듯이 색채에 있어서도 명확한 관계를 확립해간다(Lowenfeld, V., & Brittain, W. L., 1998. p. 151).

아동이 주변에 있는 사물과 공간에 대한 도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같은 대상에 대한 색상을 반복해서 칠한다. 이러한 아동의 색채 도식(color schema)은 시각적이거나 정서적인 색채개념에서 비롯되는데, 어떤 대상과 갖게 되는 최초의 도식은 색채 변화가 중요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공간의 이탈적 표현이나 형태적인 개념의 이탈적 표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색채 도식의 변화를 통해 어린이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길태화, 2001, p. 9). 즉 아동이 땅과의 관계를 흙이 있는 마당에서 처음으로 확립했거나 반복을 통해 이러한 공간 경험이 확고해졌다면, 잔디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땅은 갈색으로 표현될 것이며, 이러한 색채 도식은 색채 변화가 중요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권영경, 2004, p. 12-13)

나) 중학년 단계(3-4학년)

이 시기의 아동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 능력과 감수성이 발달하면서 사물을 보는 방식에서 사실적인 묘사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본다. 이 시기 아동의 미적 표현에서는 사실적, 객관적 표현이 나타나며, 공간의 깊이와 자연스러운 색을 나타내는 기술이 발달한다.

1) 심리 발달적 측면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회적 독립성을 발견하게 되고 친구와 어울리려는 활동이 현저하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즉, 어떤 하나의 그룹이나 공동 작업의 참여에 의한 의욕이 활발해진다. 대개는 가정에서 매우 산만한 시기이며 자아를 지각하여 본인이 직접 표현하고자 하는 의욕이 약해진다(길태화, 2001, p. 10). 따라서

아동들의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의 발달을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미술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황민순, 2001, p. 43).

2) 색채 발달적 측면

도식적인 색채와 대상관계로부터 벗어나 특징적인 색채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물론, 색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고 해서 진정한 시지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림을 그릴 때 명암이나 그림자, 배경 등의 분위기가 표현되기에 고정적인 색 개념으로만 설명하지는 못하는 시기이다. 만 9-10세의 중학년의 아동이 주로 사용하는 색은 그 아동의 주관적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 아동은 물감을 즐겨 쓰게 됨에 따라 색의 차이와 유사점에 대해 보다 민감해진다(길태화, 2001, p. 10).

아동들의 미술표현에서 눈여겨 볼 점은 색채처리 능력이다. 저학년 아동들의 색채 구별능력은 중학년이 되면서 많이 발달한다. 이들은 어떤 색을 지적할 때 그저 노랑이라고 하지 않고 밝은 노랑이라고 말하며 어둡고 밝은 색, 맑고 탁한 색에도 주의를 기울일 줄 알게 된다. 또 어둡고 밝은 색, 맑은 색과 탁한 색에도 차이를 느끼며 주의를 갖는다. 그리고 대상의 특성과 부합되는 색, 자신이 나타내려는 것에 알맞은 느낌의 색을 선택하는 경향도 서서히 나타난다.

혼색은 중학년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연하게 나타난 혼색의 효과에 흥미를 가지다가 그러한 혼색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나타내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색을 섞어 쓰기 시작하기 때문이다(황민순, 2001, p. 46-47).

다) 고학년 단계(5-6학년)

이 시기는 의사실기의 단계로서 사람의 형태와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되며 세부적인 표현이 증가한다. 또한 미적 표현에 있어서도 정교하게 나타내려고 한다(권영경, 2004, p. 15).

1) 심리 발달적 측면

이 시기에는 지각의 발달로 논리적 현상이 나타나기 증대되지만, 아직도 또래 집단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놀이를 하고 노는 시기이다. 흔히 가정에서 야단을 맞는 모습이 자주 보여 지며 사춘기를 향하는 전도로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정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3차원적인 표현도 가능하게 되며 시각형 아동은 내용적 표현을 위주로 하고 비시각형 아동은 자기가 본 것을 의식하게 된다(길태화, 2001, p. 10).

2) 색채 발달적 측면

이 시기에는 시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만이 변화의 효과 속에서 색채를 보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색채에 대한 시각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단지 색채를 인식할 능력을 갖고 있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녹색, 빨강 혹은 파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간의 색채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색채에 관한 시각적 개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각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이한 외부조건 아래에서 색채의 변화를 알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같은 색채도 밝고 어두운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색채들은 중심 색에 영향을 미쳐 다르게 보이도록 한다. 먼 곳에 있는 빨강과 가까이 있는 빨강, 그리고 흐린 날의 빨강이 맑은 날에는 아주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시각적인 개념을 가진 아동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시각적 인상들을 색채 선호시에 적용시킨다. 반면 비시각적 개념을 가진 아동은 색채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인 반응에 크게 의존하는데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이런 두 극단 사이에서 두 가지 특성을 함께 보여준다(Lowenfeld, V. & Brittain, W. L., 1998. pp. 201-202).

색채 인지 발달 과정의 주요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색채 표현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즉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적인 성숙 또는 학습과 표현발달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남으로써, 발달의 법칙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연령의 아동은 대개 같은 상징을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성격유형

에 따른 색채 선호에서도 하나의 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은 자신에게 흥미 있고 의미 있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한다. 이것을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강렬한 색채로 표현한다. 아동뿐만 아니라 반 고흐, 고갱 등 여러 화가들의 열정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감동을 받듯이, 예술은 감정과 주관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색채는 아동의 자유로운 감정표현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들의 색채를 통해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색채는 아동의 개성 및 사회성 발달과 관련이 깊다. 성격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동은 색채를 아무렇게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내면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감정에서 우리나라의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표현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화를 보고 그들의 성격을 분석해 낼 수 있다.

3. 색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색의 감정적 요인

1) 한난(寒暖) 감각

청색과 그 계통의 색을 한색(寒色)이라 하고, 적색과 그 계통의 색을 난색(暖色)이라 한다. 적색은 따뜻한 느낌을 주며 한색은 차가운 느낌을 준다. 이러한 구분은 색채 자체에서 나오는 온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건을 볼 때 그 물건의 색에 따라 느꼈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태양을 빨갛다고 지각한 후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지각하며, 물과 바다를 파랗다고 지각한 후 차갑다고 지각한다. 우리들의 생활주변에는 이러한 온도감각을 통한 센스를 많이 볼 수 있다. 청색이나 녹색 계통의 한색을 중심으로 한 여름철 선풍기와 적색 또는 분홍색 계통의 난색을 중심으로 한 겨울철 난방기구, 청색이나 청록계통의 청량한 색과 흰색이 잘 어울리는 여름 의상과 적색이나 황색, 갈색 등의 난색 계열이 어울리는 겨울철 의상은 심리적인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무게(輕重) 감각

색채가 주는 무거운 느낌이나 가벼운 느낌의 경중감(輕重感)은 일반적으로 명도가 높은 색이 가볍게 느껴지고, 명도가 낮은 색은 무거운 느낌을 준다. 흰색과 같은 명도가 높은 색의 경우 운동현상이 외부로 향하기 때문에 가벼운 느낌을 주며, 검정과 같은 명도가 낮은 색은 운동현상이 내부로 향하기 때문에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이다. 즉 경중감은 명도와 관계가 있지 채도와는 관계가 없다. 색채의 무게 감각도 한난 감각과 마찬가지로 색채 자체의 무게 차이의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경험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3) 팽창과 수축, 진출과 후퇴 감각

색채에 따라 길보기의 넓이가 실제의 넓이보다 크게 느끼는 심리현상을 '팽창성'이라 하고, 이와 반대의 현상은 '수축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팽창과 수축의 인상을 주는 색을 '팽창색'과 '수축색'이라고 한다. 또 두 가지 색을 같은 거리에서 보면 한 쪽이 다른 한 쪽보다 가깝게 보이는 일이 있다. 이런 경우에 배경보다도 앞에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을 '진출성', 이런 색을 '진출색'이라하며, 배경보다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후퇴색'이라 부른다(하용득, 1989, p. 113-114).

4) 화려함과 검소함

화려함과 검소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상이나 인상, 사물의 색채나 모양 등에 많이 쓰이는 말이다. 단일색(單一色)의 경우 일반적으로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은 화려한 느낌이 강하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은 검소한 느낌을 준다. 두 색 이상이 배색될 경우, 배색된 그 자체의 느낌과 색상, 명도, 채도대비에서 대비의 차에 따라 화려함과 검소함의 느낌이 정해진다.

나. 환경적 요인

1) 지역설(地域設)

지역설은 주로 기후관계와 관련이 깊어 태양광선이 비추는 시간이 긴 지역 및 각도에 의해서 특정지역의 색채기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한 학설이

다. 이를 주장한 학자인 파버 비렌(Faber Birren, 1900-1988)은 “인간이 색채를 기호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건강상태이기 때문이며 쾌청의 기후에 관련하여 명확한 반응과 기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기후와 환경을 강조하였다.

한편, 태양 광선이 비추는 시간이 짧은 지역에서는 채도가 낮은 색채가 요구되어 녹색 및 청색과 같은 한색계통의 색채에 대한 기호가 주목된다. 그러므로 색채기호의 두 개의 유형은 온대지방에 있어서 태양 광선의 우월과 극지방에 있어서의 백야의 지배와의 비교에 집약된다. 다시 말하면 색채기호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조건 및 기후 풍토 등의 특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한다(野村順一, 1996, p.15; 길태화, 2001, p. 19에서 재인용).

2) 민족설(民族設)

색채기호의 민족설이란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민족의 색채기호 경향을 발견하고자 하는 학설로 민족의 기호색이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길러진 결과이다(宮下孝宏住, 1958, p.23; 길태화, 2001, p. 20에서 재인용).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흰색이 상색으로 사용되었지만 서양의 경우에는 흑색을 상색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것도 하나의 민족적 요인 또는 문화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파버 비렌은 색채기호가 인종적 피부색과도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황인종의 기호 색은 빨강, 노랑, 금색이고, 백색인종은 파랑, 빨강, 녹색, 보라, 오렌지색의 순위라고 밝히고 있다. 색에 대한 기호나 편견은 인간의 심리에 기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나 신뢰도가 높은 척도를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많다(길태화, 2001, p.20).

3) 성별설(性別設)

남성보다 여성은 색채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민감하여 화려하고 선명한 색을 좋아한다. 체스킨(Louis Cheskin, 1907-1981)에 의하면 “여성은 고대로부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색채계획과 방법으로서 남성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여성은 남성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색으로 경쟁을 하나, 더욱 민감한 여성은 섬세하고 억누르는 인상을 주지 않는 파스텔조의 의복을 선택하여 역(逆)으로 효과를 노린다.”고 기술하였다(Louis cheskin, 1976, p. 127; 길태화, 2001, p. 20에서 재인용).

4) 연령설(年齡設)

파버 비렌은 유아의 색채기호 순위는 노랑, 흰색, 분홍, 빨강, 주황, 파랑, 녹색, 보라이며, 성인은 파랑, 빨강, 녹색, 흰색, 분홍, 보라, 주황, 노랑의 순위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침착한 색을 좋아하고 명도와 채도는 점점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반면 아동은 강렬한 색채를 좋아한다고 밝히고 있다(野村順一, 1996, p.127; 길태화, 2001, p. 21에서 재인용).

성인의 90%가 형태우월(形態優越)이기 때문에 색채우월의 개성을 가진 성인은 충동적이고 비성숙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사회적으로는 비지적(非知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Deborah, 1972, p. 11; 오영숙, 1991, p. 20에서 재인용).

5) 성격설(性格設)

난색계(暖色系)는 자극, 흥분을 추구하므로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 좋아한다. 솔직하며 행동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색채를 좋아하지만 특히 난색계를 좋아한다. 한색계(寒色系)는 침착, 진정을 촉진하여 내향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 좋아한다. 보수적이며 조용한 사람들은 한색계를 좋아한다(윤일주, 1978, pp. 17-18).

4. 아동의 성격과 색채 선호에 관한 선행연구

가. 아동의 색채 선호도 분석

아동의 색채 선호 경향은 인성적 · 심리적 요인과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 문화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아동에게 색채는 일종의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인 것이며, 비록 색채의 개념이 약하다 해도 자신의 욕구와 동기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아동은 그림을 그릴 때 선과 형, 그리고 색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이때 사용되는 색은 자신들이 그려놓은 형들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의 이미지 세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만 5세 이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

만 그 구분이 모호하고 차차 성장해가면서 남녀의 성별 차이에 따라 색채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며, 아동의 지각과 모험의 영향도 받는다.

아동은 각각의 색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정과 정서를 갖고 있다. 만 5-6세의 아동에게 9가지의 색깔(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핑크, 갈색, 회색, 검정)을 하나씩 보여주며 각각의 색에 대한 느낌을 말해보도록 하면, 밝은 색들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반면, 어두운 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특별히 여자 아동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나이가 더 많을수록 밝은 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어두운 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아동들도 색에 대한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도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성장해감에 따라 색에 대한 정서 개념도 다양한 사회경험과 환경을 통해 더 구체화될 수도,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의할 것은 색에 대한 견해는 여러 학자마다 다르며, 아동의 그림 역시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욕구나 감정에 의해 일정한 형식이 없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의 성격이나 심리를 확정짓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점이다. 어떤 특정 색에 대한 아동의 관심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며, 그 때 그 때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의 성장 발달은 유전적인 요인과 인성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환경적 · 문화적 요인, 즉 가정이나 학교에서 주어지는 물리적 · 심리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동의 색채 선호도는 어린 시절의 특정 색에 대한 경험이 이미지를 형성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잠재의식 속에 연상 작용을 일으킨다. 아동의 색채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1895년 콘(Cohn)의 색채 선호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시초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는 제한된 색 약간을 몇 인치의 정방형 색지로 오려서 색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대비가 강한 배색이 대체로 선호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색채 선호도에 대한 주요 연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보았다.

빈치(Winch)는 1909년 2,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은 빨강을 제일 좋아했고 6세가 넘는 어린이들은 파랑을 가장 좋아하였다. 남자 아동들은 파랑을 가장 좋아했고 빨강을 두 번째로 좋아했으나 여자 아동들의 경우는 빨강이 다섯 번째로 좋아하는 색이었다.

카츠(Katz)와 브리드(Breed)는 1922년 2,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색채 선호를 조사하였다. 파랑을 가장 선호하며 나이가 어릴수록 파랑, 초록을 선호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빨강, 주황, 노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드(Gath)의 연구에서는 6세 된 아동은 빨강을 좋아하고 다음으로 파랑을 좋아하며, 이 나이가 지나면 파랑을 제일 먼저 고르고, 다음으로 빨강과 주황을 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색채 선호는 나이와 교육적 배경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한다. 498명의 남자 아동들은 파랑 다음으로 빨강을 좋아했지만, 502명의 여자 아동들은 빨강을 다섯 번째로 좋아했다.

파버 비렌(F.Birren)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어린 시절 좋아하는 색의 순위는 빨강, 파랑, 초록, 자주, 노랑으로 조사되었고, 성인의 경우에는 파랑, 빨강, 초록, 자주, 노랑 순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색채 선호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아동의 색채 선호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난색에서 한색으로 변화해가는 경향이 있으며, 대개는 아동들이 원색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선호색은 선천적인 영향보다는 주위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영아 때는 자신의 부모에 의해,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친구들과 지도하는 선생님 등의 영향을 받는다. 여자 아동의 경우 유치원 등 기관에 입학하게 되면 색채 선호가 뚜렷하게 변한다. 다양한 색을 선호하던 아동도 유치원에 가게 되면 여자색, 남자색 등 성별에 따른 색 구별법을 접하게 되고, 여자 아동의 경우 그 영향력이 매우 커 핑크 공주란 말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분홍과 파랑은 여성과 남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상으로 여겨져 선호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성별을 구분하려는 아동기에 특히 두드러진다. 이는 여자는 온순하고 예뻐야 하며, 남자는 씩씩하고 진취적이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에 따라 어려서부터 여자 아이에게는 분홍색을, 남자 아이에게는 파란색

을 노출시킨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옛 문헌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여성들이 오히려 푸른색 옷을 즐겨 입었고, 남성들이 붉은색을 선호했다고 한다. 서구문화에서도 성모 마리아가 파란색 옷을 걸친 반면, 아기 예수는 분홍 옷을 입고 있는 그림을 종종 볼 수 있다.

분홍과 파랑이 각각 여자색, 남자색으로 인식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여아에게는 분홍색 옷을, 남아에게는 파란색 옷을 입히는 유행이 생겨나면서부터이다. 이것은 섬세하고 부드럽고 예쁜 분홍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파랑이 주는 색의 이미지 때문이었다. 이처럼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색의 상징과 의미가 변하며, 아동의 선호색은 연령이나 성별뿐만 아니라 아동이 처한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아동의 색채 선호는 연령이나 성별 등에 따른 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동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색채 선호를 보인다. 아동의 색채 선택은 색을 선택할 당시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또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아동의 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아동의 활동 모습이나 변화를 관찰하여 색채 선호와 아동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하며, 그 결과물을 아동의 이해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한국색채연구소, 2006).

나. 아동의 색채 선호에 따른 심리 분석

유아동의 그림 속에 그들의 정서나 심리가 특히 잘 반영되는 것이 색채이다. 충동적인 아동은 색채에 강한 흥미를 보인다. 비교적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아동일수록 색채에 대한 흥미가 줄어든다. 색채보다 선이나 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아동은 자기 방어를 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고 외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이 크며 감정적이기보다 이지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한국색채연구소, 2006, p. 46).

〈표 II-4〉 색채 선택에 따른 일반적인 색채심리

색채	상징
 빨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활발하고 친구들 간의 자기의 주장을 많이 내세운다. · 집안에 함께 사는 식구가 많다. · 의식적으로 거친 행동을 많이 한다. · 친구를 오래 사귀지 못한다. · 생각 없이 앞장서는 경우가 많다. ·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 아들은 흔히 태양의 색을 빨강으로 칠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태양색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자신의 심리적 표현일 수도 있다.
 주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를 많이 먹고 자란 어린이. · 의지력이 약하여 의존심이 강하다. · 항상 불만이 많고 자기주장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 · 외로움을 많이 타며 형제가 적다. · 자기 행동과 손의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무조건 참으려고 한다.
 노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이 매우 냉정하다. · 친구들을 골라서 사귈다. · 지능지수가 높다. · 외부와의 접촉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 결단력과 의지력이 강하다. · 신경이 예민하다. · 권위주의적이다. · 태양을 노랑으로 그렸다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초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이 완고한 경우가 많다. · 자기주장이 강하다. ·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 사물 판단을 잘한다. · 상상력이 풍부하여 노력형이다.

 파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장하고 불안스런 성격이다. · 공상적인 꿈을 많이 꾸다. · 잘 놀란다. · 기분이 좋을 때 파랑을 칠하는 경우가 많다.
 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집이 세고 지구력이 강하다. · 지능이 높고 응용력이 강하다. · 치밀한 성격으로 어떤 일이든지 잘한다. · 운동을 좋아하며 친구를 잘 사귈다. · 기분이 좋을 때 부모와 문제가 있을 때 보라를 쓰는 경우가 많다.
 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이고 폐쇄적이다. · 고집이 강하고 친구가 적다. · 자기 주관이 매우 강하여 남에게 과시한다. · 사고력이 부족하고 신체건강에 문제가 있다.
 회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심이 많고 외로움을 많이 탄다. · 냉철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 창의력이 있다. · 편식 습관이 심하다.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짓궂고 실천력과 적응력이 강하다. · 가정환경이 대체로 밝지 못하다. · 지능지수가 높다. · 부모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

아동의 미술과 정서, 성격, 문제행동 등을 관련지어 연구함으로써 아동미술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아동미술 연구로는 알슐러(Rose Alschuler)와 해트윅(La Berta Weiss Hattwick), 아사리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차동채와 김춘일, 2000, p. 218).

(1) 알슐러와 해트윅의 연구

알슐러와 해트윅은 그림을 통해 아동의 심리를 연구하였고 1947년 ‘회화와 퍼스널리티’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아동화의 색채, 형상, 요소의 배치 등이 아동의 정서 및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150명의 유아동의 행동 특징과 색채 선호를 분석하였는데, 따뜻한 색을 즐겨 쓰는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감정, 따뜻하고 애정적인 관계, 이 나이의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아동이며, 다른 사람의 애정에 기대고, 놀이를 할 때 협동적이며,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반면, 차가운 색을 즐겨 쓰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고도로 자기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고, 지적인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혼자서 놀며 의지하려 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유아동 88명의 자유화에 나타난 색채 선호에 대한 분석에서 유아에서 아동에 걸쳐 따뜻한 색의 선호에서 차가운 색의 선호 경향으로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자유분방한 자기중심적 행동에서 가족, 이웃, 친구, 선생님과 어울리는 통제된 행동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색채에 있어서, 빨강을 좋아하는 아동은 따뜻한 색을 좋아하는 아동과 유사하여 느낀 대로 행동하는 자유로운 성격이며 사회적 규범 같은 것은 크게 마음에 두지 않고 협동심이 있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한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빨강을 사용하여 둥근 형태의 물체를 그리거나 넓게 표현하면 애정이나 기분이 좋은 상태이며, 반대로 수직이나 수평으로 꼭 뻗어 그리거나 무겁고 굵게 덧칠한 경우는 공격적이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것이다. 즉 애정에 찬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와, 격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상반된 경향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파랑을 좋아하는 아동은 어른들의 규칙에 맞추려고 하고, 더 크고 싶다는 욕구

를 나타내며 불안이나 공포심을 품고 있을 때 잘 나타난다고 한다. 과량을 얹게 칠하거나 덩어리로 칠할 경우 외적인 규범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선·구성 또는 형태로 칠하는 경우 활동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노랑을 좋아하는 아동은 대개 의존적인 아동이 많으며 정신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소 지체되어 있는 듯하며, 행동도 정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아동과 유대관계가 좋아 인기가 많으며 어린이다운 행복감에 찬 상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검정을 좋아하는 아동은 자유로운 감정의 흐름이 부족한 아동이 많다고 말한다. 감정이 결여된 상태나 공포나 불안에 의해 생긴 자기의 감정을 반영하는 일이 많고, 결혼가정 환경에 대한 체험, 자신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두려움을 검정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밖으로 보기에는 순종하고 온순하며 적응된 행동을 보이지만, 내면생활에 있어서는 자기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주황을 좋아하는 아동은 주위환경에 잘 순응하고, 즐겁고 명랑한 기분을 가진 아동이 많은 반면, 자신의 강한 감정을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소심한 성격이 있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상상과 공상이 너무 커서 실제 생활로부터 도피하는 아동이 주황색을 자주 선호한다고 말한다.

고동색을 좋아하는 아동은 너무 일찍부터 용변 훈련을 받았거나, 청결 습관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동이 많으며, 고동색을 즐겨 쓰는 아동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보라를 좋아하는 아동 또한 소수에 불과하며, 가정적으로 불행한 아동이 많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초록을 좋아하는 아동은 자제력이 지나치게 많으며, 주의 깊고 자기만족적인 성격으로서 적절한 어법을 구사한다고 한다. 또한 충동을 자제할 능력이 있으며, 가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훈육을 받고 있는 아동인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김재은, 1970, pp. 103-107, 김정, 1990, p. 351-353).

(2) 아사리의 연구

일본의 아동화 연구가인 아사리는 아동화와 신체적 이상(異常)이 직접적, 대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아사리는 색을 통해 나타나는 정신적 · 신체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얼핏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무조건 테스트’(색과 심리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사례를 무차별적으로 조사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라는 실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아사리가 1956년에 발표한 ‘아동화의 비밀’은 풍부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화의 특징과 정신적 질환과의 관계를 법칙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여, 근 30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읽혀지고 있다. 그의 연구는 아동화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모든 창작물은 표현자의 정신과 대응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으로 활용하여 원인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치료가 가능하며, 방대한 치료의 사례를 확보하고 제시하는 데에 연구가 발전되고 있다.

아사리는 색채특성과 아동의 행동을 결부시켜 양자 간에 일관된 법칙성이 있다는 것과, 광범위한 일본지역에 걸쳐 동일한 법칙이 있다는 하나의 보편성을 발견했다.

〈표 II-5〉 아사리의 ‘무조건 테스트’에 나타난 색채의 심리적 · 생리적 의미

색채 단어	심리적 · 생리적 의미
흰색	경계심, 실패의 느낌
검정	공포심, 부모의 히스테리
빨강	불만, 비난, 공격
오렌지	극도의 애정 결핍
노랑	애정 욕구
고동	욕구, 식욕, 물욕
초록	허약, 피로, 슬픔
파랑	의무감, 복종, 순종
보라	질병, 상해와 그 영향
분홍	아픈 마음
회색	불안

검정 · 빨강	어머니의 꾸지람, 사망, 부재
검정 · 노랑	아버지의 꾸지람, 사망, 부재
검정 · 고동	극도의 애정 부족, 도벽
검정 · 파랑	체념, 의타심
검정 · 초록	학대, 계모, 반목
검정 · 보라	어머니의 병적 히스테리
검정 · 하양	공포심
빨강 · 파랑	질투심, 부러움
빨강 · 초록	성적 관심
파랑 · 오렌지	불결, 우둔
파랑 · 노랑	걱정, 근심
보라 · 하양	부상, 실패, 가해, 죄악감
보라 · 빨강	출혈, 월경
보라 · 노랑	질병, 상해, 고독감

(3) 김재은과 임형진의 연구

1972년에 김재은과 임형진은 자유화를 일주일 간격으로 3매를 그리게 해서, 그 그림에 나타난 색채 중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색채와 어린이들의 인성검사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활동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남자 아동은 그들이 사용하는 색채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 아동의 경우는 황토, 보라, 고동, 파랑의 색채보다는 초록을 더 많이 쓰며, 파랑은 일반적인 활동성이 강한 아동은 즐겨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서적 안정감이 높은 아동의 경우, 남자 아동 중 주황을 좋아하는 아동은 노랑, 검정, 황토, 초록, 파랑을 좋아하는 아동에 비해 안정적이며, 여자 아동 중 초록을 좋아하는 아동보다 고동색을 좋아하는 아동이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지배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남자 아동 중 황토색보다는 주황을 좋아하는 아동이 더 지배성이 강하고, 여자 아동의 경우는 보라색보다 파랑, 초록, 고동색을 좋아하는 아동이 더욱 지배적이다.

충동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주황에 비해 황토색을 좋아하는 남자 아동들이 더

육 충동적이며, 파랑, 초록, 황토, 보라, 고동색에 비해서 빨강을 좋아하는 여자 아동들이 더욱 충동적인 경향을 보였다. 빨강과 노랑은 여자 아동의 경우 다분히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아동들이 좋아하는 색이라 하였다.

사고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남자 아동은 색채간의 변별이 불가능하며, 여자 아동은 빨강보다는 보라나 파랑을, 고동색보다는 초록을 좋아하는 아동이 사고가 깊다고 하였다.

사회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파랑과 황토색보다는 초록과 주황을 좋아하는 남자 아동이 사회성이 더 높으며, 여자 아동은 파랑이나 노랑보다 빨강을 더 좋아하고, 노랑보다 파랑이나 초록색을 좋아하는 아동이 사회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4) 김정의 연구

김정의 연구(김정, 1990)에 따르면, 빨강은 남자 아동보다 여자 아동이 더 즐겨 사용하는 색이며, 저학년일수록 남녀 모두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파랑은 우리나라 아동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깔로 특히 남자 아동이 즐겨 쓰며, 여백의 공간은 거의 파란 계열로 메꾸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노랑은 밑그림으로 많이 쓰는 색으로 우리나라 아동들의 그림에서 노란색이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는 이유를 말한다. 초록은 아동에게서 의외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색으로 특히 겨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정은 나이가 어릴수록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아동의 '정신과 색채 표현의 상호관련성'이다. 우리는 아동의 언어, 행동, 표정 및 자세 등을 통해 아동의 감정 상태를 알지만, 아동화에도 그들의 정신이 드러난다는 색채 표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심리적 성향을 언어, 행동, 태도 등에 의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성격검사와 아동의 정신이 들어있는 색채 표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하지만 알슐러와 헤트윅, 아사리 등은 그림에서 회색을 사용한 아동을 정서적 결핍이나 인간관계가 나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김정을 비롯한 다른 연구는 그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알슐러의 연구에서 보라색을 소수의 아동만 쓰는 색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아동들은 상당수 표현하고 있다. 아사리의 색채의 의미는 수학 공식과 같이 지나친 법칙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색채를 심리적 의미와 관련시켜 지나치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완전히 심리적 의미를 깨뜨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이 화면 전체를 검정으로 칠했다. 알슐러와 아사리의 연구에 따르면 모두 신체적 결함이 있으며 어머니의 히스테리가 있고 감정이 결여된 상태라는 해석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 그림을 그린 아동은 신체적 결함이 없는 건강한 아동이며, 어머니의 히스테리가 없는 환경이었고, 감정이 결여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심리적 분석과는 정반대의 견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동의 그림이다. 따라서 아동과 색채와의 관계는 유동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무슨 색은 어떤 결과라고 단정해 버리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5. 융의 성격유형론

가. 성격의 정의

융(Carl Gustav Jung, 1875 - 1961)의 심리이론은 인간행동이 그 다양성으로 인해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경향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인간행동의 다양성은 개인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인식은 사물, 사건, 또는 아이디어를 깨닫게 되는 모든 방법을 가리키며, 판단은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결론을 내리는 모든 방식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결론을 내리는 방법도 다르다면, 반응, 흥미, 가치, 동기, 기술, 관심 등이 다른 것도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성격(personality)은 어원적으로 탈 혹은 가면의 뜻을 함축한 라틴어 페르조나(persona)를 내포한 말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 지는 개인의 모습 및 특성을 나타낸다(성격심리학, 2003, p. 2). 즉 사람의 성격은 겉모습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융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 구조를 사고, 감정, 감각, 지각의 네 가지로 보고 만일 이것들의 기능 중 한 개가 습관적으로 우세하게 되면 제 각기의 형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이 곧 사고형, 감각형, 감정형, 지각형이다. 이 네 개의 형은 그 목적물에 대한 관계에 따라 주관적, 객관적으로 나누어서 8개의 기본형으로 분류된다.

나. 다양한 심리 유형으로 인간을 파악한 융의 이론

융은 무의식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측면에도 관심이 있어 인간의 인성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융은 서로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인간 행동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이 유형 중 하나를 선호하고 점점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어 곧 한 사람의 특성이 된다는 것이 융의 주장이다. 융은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내향형(introversion)과 외향형(extraversion)으로 분류하였고, 두 심리 유형에 따라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이 두 성향 중 하나의 성향이 한 인간의 인성을 지배하게 되며, 나머지는 무의식으로 굳어진다.

융은 이 두 가지 유형에 네 가지 기능을 접목하여 인성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가 만든 네 가지 기능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두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고(thinking), 감정(feeling), 감각(sensation), 직관(intuition)이 그것이다. 이 중 사고와 감정은 이성적인 기능, 즉 내부의 정신적 과정에 의존하며 판단하고 경험을 판단한다. 감각과 직관은 비이성적 기능, 즉 객관적 자극에 의존하며 경험을 인식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인간의 의식의 방향은 위의 네 가지 기능 중 하나로 향하게 되며, 지배적인 성향이 그 사람의 인성과 반응의 방식을 결정한다. 그 중 가장 약한 기능은 주로 무의식 상태로 남게 되며, 나머지 두 가지 기능은 무의식과 의식에 부분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만약 의식의 기능이 특별히 강해지게 되면, 무의식에 잠재해 있던 그 반대의 기능이 의식 위로 종종 튀어 나오는데, 이것이 이른바 '억압된 것의 회귀'라 불리는 히스테리, 공포증, 강박관념, 불안증 등이다(Ruth Berry, 2004, p.97).

융은 인간의 네 가지 기능과 두 가지 유형(내향성과 외향성)을 각각 결합하여 8가지 심리 유형을 제시한다. 외향적 사고 유형, 내향적 사고 유형, 외향적 감정 유형, 내향적 감정 유형, 외향적 감각 유형, 내향적 감각 유형, 외향적 직관 유형, 내향적 직관 유형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은 정확하게 하나의 유형으로 맞춰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만약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유

형이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의 인성은 성장하면서 다양하고 무한히 변하기도 하며 인격을 발달시키고 성숙시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유형을 바뀌어나갈 수도 있다. 따라서 몇 가지의 유형으로 모든 사람들을 정형화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며 위험한 일이다. 실제로 융의 이론은 개인적 심리를 설명하고자 한 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 것들이다.

다. 정신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

인간의 심리 유형은 유아기 초반에 명확해지기 시작하며 유전, 부모유형, 사회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유전적 요소에서 아이는 유전적 요소에 따라, 보다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성향으로 자란다. 부모 유형에서 아이는 부모 중 한 쪽을 정형화하여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반대로 반항하기 위해 일부러 상반되는 유형을 발달시킬 수도 있다. 사회적 요소에서 어떤 행동이 주변으로부터 장려되거나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면, 아이의 심리 유형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아동은 보다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며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라. 만다라를 통한 자기 발견

만다라(mandala)는 '마술 원'이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로 우주 혹은 자기(self)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 원형이다. 만다라의 형태는 우주 전체 혹은 자기(self)의 전체인 '내면의 우주'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기(self)란 자아를 초월하는 정신 전체의 원형을 뜻한다(루스 베리, 2004, p53). 융은 만다라를 통해 만다라의 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의 길은 중앙으로 향하며 그 중앙이 바로 자기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러한 원형적 상징의 만남들은 융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인격화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양면에 있는 개성의 총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융은 정신 발달의 진정한 목표는 개성화(individuation), 즉 진정한 자기의 발견이라고 하였으며, 만다라를 개성화 과정의 가장 훌륭한 상징으로 여겼다.

6. SSI 성격유형검사

가. 성격유형검사의 정의

SSI(Student Styles Inventory)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MBTI(Myners-Briggs Temperament Invertry)와 마찬가지로 융(Jung)의 이론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학생들의 개별성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제공하는 학생유형검사이다.

MBTI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반면 SSI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기들에게 유용한 검사로서, 특히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방법, 대인관계 방식, 과제수행 방식 등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SSI의 모든 문항들은 일상적인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이 자신과 쉽게 관련지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SSI는 융의 이론에 근거하여 각 개인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으로 평가한다.

- 외향형(Extrovert) - 내향형(Introvert)
- 실제형(Practical) - 상상형(Immaginative)
- 사고형(Thinking) - 감정형(Feeling)
- 조직형(Organized) - 유연형(Flexible)

SSI 성격유형검사는 각 학생들이 지닌 개별적인 학습 방식이나 대인관계 방식을 측정한다. 따라서 협동학습을 위한 집단 구성, 개개인에게 보다 효과적인 학습 방식의 이해, 그리고 이에 적응하는 학습지도와 진로지도, 또한 각 유형에 맞는 학습의욕을 높이거나 동기 수준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도 찾아 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대인간 의사소통 방식이나 문제행동의 이해, 나아가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할 때도 그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즉, SSI는 외향형, 내향형, 실제형, 상상형, 사고형, 감정형, 조직형, 유연형의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들 각각의 성격유형 분류에 따른 일반적인 성격특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나. 성격유형 분류

1) 외향형(Extrovert) - 내향형(Introvert)

개인의 에너지와 초점이 외부로 향하는지 내부로 향하는지에 따라 외향형 또는 내향형으로 나눈다. 외향형 학생은 사람, 사물, 사건 등과 같은 외부적 에너지를 받고 자신의 주의(관심)를 외부세계에 집중한다. 반면에 내향형 학생은 사고, 개념과 같은 내부 에너지를 받고 자신의 주의를 자신의 내부에 집중시킨다.

〈표 II-6〉 외향형 - 내향형의 일반적인 성격특성

외향형	내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과 있으면 에너지가 생긴다. ·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 친구가 많다. ·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사람들에게 잘 다가간다). · 변화와 활동을 즐긴다. · 말을 먼저하고 생각한다(말이 생각보다 앞선다). · 관심사가 많고 다양한 취미를 가진다. · 자신의 외부세계에 집중한다. · 의견, 아이디어, 경험을 자유롭게 나눈다. ·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과제를 배운다. · 말을 통한 의사소통을 좋아한다. · 장기간의 과제를 할 때 휴식시간을 가져야 능률이 오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서도 만족스럽게 일한다. · 스스로 에너지를 이끌어낸다. · 집중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 먼저 조용히 생각하고 난 후에 의견을 나눈다. · 낯선 사람들과 있으면 수줍음을 많이 타는 편이다. · 몇몇의 가까운 친구가 있다. · 자신의 내면의 관념적 세계를 즐긴다. · 사생활에 가치를 두고 주의 깊게 (신중하게) 나눈다. · 대화보다 독서를 통해 배운다. · 글을 통한 의사소통을 더 좋아한다. ·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2) 실제형(Practical) - 상상형(Imaginative)

사람들이 사실에 더 집중하느냐 또는 이론에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실제형 또는 상상형으로 나눈다. 실제형의 학생들은 대체로 제시된 사실이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초점을 둔다. 반대로, 상상형의 학생들은 대체로 이론 및 포괄적인 사항들에 초점을 둔다.

〈표 II-7〉 실제형 - 상상형의 일반적인 성격특성

실제형	상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인 접근법을 가진다. · 관습적인 방식으로 일을 한다. · 과거 또는 현재에 대해 생각한다. · 사실들에 대해 주의 깊다. · 정밀한 작업을 즐긴다. ·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주의 깊게 실행한다. · 사실 또는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 현재의 상태를 수용하여 그 속에서 일을 한다. · 세부사항과 감각적인 경험들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 단계별 접근을 통해 결론에 도달한다. ·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정보에 가치를 둔다. · 사실들과 개인적 경험에 가치를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한 아이디어를 꿈꾼다. · 새로운 방법과 고안해 내는 것을 즐긴다. ·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일(공부)한다. · 일반화에 더 주의집중하고 전체적인 틀을 강조한다. ·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까지 철저하게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 미래 가능성을 꿈꾼다. ·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발명한다. · 자신의 영감과 직관에 따른다. · 어떤 것이 왜 지금처럼 되었는지에 대해 묻는다. · 세부적인 사항들에 집중하기보다 관례적인 세계 속에서 산다. · 빠르게 결론에 도달한다. · 가설과 추상적인 관념에 가치를 둔다. ·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3) 사고형(Thinking) - 감정형(Feeling)

학생들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눈다. 사고형의 학생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반대로 가정형의 학생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표 II-8〉 사고형 - 감정형의 일반적인 성격특성

사고형	감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 · 확고하고 의지가 강하다. · 확실하게 밝혀진 진실에 가치를 둔다. ·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작업을 원한다. ·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 감정표현이 어렵고 서툴고 무디다.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 선택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를 예상하거나 예견한다. · 객관적이고 원리 원칙적이고 분석적이며 논리적이다. · 문제 또는 상황을 분석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 논쟁하고 경쟁하는 것을 즐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칭찬을 필요로 한다. · 동정심이 많다. ·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가치를 둔다. ·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즐긴다. ·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다. · 사람들의 감정을 감지하는데 능숙하다. · 일이나 아이디어 이면에 내재된 개인에게 관심이 많다. ·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졌다. · 논쟁 또는 경쟁을 싫어한다.

4) 조직형(Organized) - 유연형(Flexible)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좋아하는 지에 따라서 조직형 또는 유연형으로 나눈다. 조직형의 학생은 어떤 결정을 하기 좋아하고 문제를 종결하고 또 생활에서 구조와 조직을 부여하기를 좋아함, 유연형의 학생은 이와 대조적으로 가능한 한 결정을 미루려고 하며 생활에서 자유로움과 융통성을 가지려 한다.

〈표 II-9〉 조직형 - 유연형의 일반적인 성격특성

조직형	유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Life Style(생활양식)을 더 선호한다. · 구조화되고 마무리 짓는 것을 즐긴다. · 행동(활동) 내용과 일정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 정리되고 마무리된 것을 좋아한다. · “놀이 전에 공부하기”라는 원칙을 지킨다. · 한 번에 하나의 과제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통성이 있고,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생활양식을 더 선호한다. ·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둔다. · 변화하는 상황에 잘 적응한다. · 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 즐겁게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 한 번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시작한다. · 삶에 대해 여유롭다.

SSI에서 측정하는 네 개의 차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학생유형은 다음과 같은 16개의 학생유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나누어진다.

가) 외상감유(외향형-상상형-감정형-유연형)

이 유형은 사교적이고 상냥하며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 마음이 따뜻하고 협조적이며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감정표현과 안아주거나 칭찬의 말을 포함한 애정을 주고받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상상형 스타일을 가진 다른 학생들처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는 활동에서 의미를 구하고 많은 연구 과제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하고 있던 일을 완성하지 않는다. 할 일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며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나) 외상감조(외향형-상상형-감정형-조직형)

이 유형은 지배적이고 창의적이며 인기가 많다. 마음이 따뜻하고 섬세하며 사람들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는 포용하거나 등을 두드리는 것과 같이 감정을 표현하고 애정을 주고받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활동에 의미를 두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사람과 연관된 문제를 해결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낸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말을 잘 한다. 글을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즐긴다.

다) 외상사유(외향형-상상형-사고형-유연형)

이 유형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기며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논리적이며 빨리 이해한다. 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종종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점을 설득할 수 있다. 유익한 논쟁을 즐기며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기를 좋아한다. 또한 새로운 방법을 일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내는 것을 즐긴다. 이러한 학생은 규칙을 피하려고 하며 인생에 대한 열정과 정열을 나타낸다.

라) 외상사조(외향형-상상형-사고형-조직형)

이 유형은 주장하는 것을 좋아하고 열정적이며 공상적이고 객관적이다. 또한 결단력이 있다. 관심이 바깥 세상에 향해져 있으며 활기차게 반응한다.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운다. 이 학생은 문제를 논리적인 분석과 그의 상상력으로 해결한다. 또한 통솔력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람들과 일을 조직하기를 좋아한다.

마) 외실감유(외향형-실제형-감정형-유연형)

이 유형은 전형적으로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상냥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수용한다. 재미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생각한다. 또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하는 새로운 일을 생각해 내기를 좋아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유머 감각이 있는 편이며 청중을 필요로 하는 매력적인 연기자이며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한다. 이 학생은 활동을 즐기고 무엇인가 지겨워지면 곧 다음 활동으로 넘어간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관찰력이 아주 예민하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응급 상황에 대한 반응은 민첩하고 확실하다. 항상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증명해 보일 기회와 도전에 준비되어 있다.

바) 외실감조(외향형-실제형-감정형-조직형)

이 유형은 사교적이고 상냥하며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 마음이 따뜻하고 협조적이며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동시에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학생은 깔끔하고 조직적인 것을 좋아하며 따라서 방이나 책상, 사물함을 깔끔하게 정리한다. 예측 가능한 일상적인 일과 명백한 기대를 좋아하며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고 결정을 빨리 내린다. 또 이론적인 것보다는 사실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그의 대화는 현재와 과거에 초점을 둔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사실과 세부사항들이 정확한 것을 좋아하며 그런 사실들이 틀리다면 즉시 이야기할 것이다.

사) 외실감유(외향형-실제형-사고형-유연형)

이 유형은 행동 지향적이고 일을 만들어 낸다. 우호적이고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수용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혼자 있기를 피한다. 그는 많은 농담을 알고 있으며 유머 감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청중을 필요로 하는 매력적인 연기자이며 활동과 다양성을 좋아한다. 만약 어떤 일이 지겨워지면 곧 다른 활동을 넘어간다. 그는 항상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와 도전에 준비되어 있고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흥미 있게 만들 수 있다. 이 학생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며 관찰력이 아주 뛰어난 편이다.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일하기를 좋아하며 상황의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주 민첩하고 확실하다. 그는 낙천적이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아) 외실사조(외향형-실제형-사고형-조직형)

이 유형은 실제적이며 현실적이고 사실 지향적이다.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상적인 일과 합리적이며 명백한 기대를 가지기 좋아한다. 그는 좋은 나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일하기를 좋아하며 정해진 방법으로 하고 빨리 결정하기를 좋아한다. 이 학생은 종종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생활이 산뜻하고 조직적인 것을 좋아하며 방이나 책상, 사물함을 깔끔하게 정리한다. 친밀한 인간관계들이 자신에게 중요하지만 그는 신체적이나 언어적인 애정 표현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또 농담을 즐기며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다.

자) 내상감유(내향형-상상형-감정형-유연형)

이 유형은 과묵하며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염려한다. 그는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약속을 잘 지키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한다. 또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일하기를 좋아하며 싸우거나 경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학생은 적응을 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한다.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공상이라고 부르는 아이디어에 대해 혼자 생각함으로써 발전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생생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호기심이 많은 일을 좋아한다. 그리고 집이나 학교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에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차) 내상감조(내향형-상상형-감정형-조직형)

이 유형은 과묵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염려한다. 그는 훌륭한 친구가 되며 생생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대가 명확한 예측가능한 일상적인 일을 선호한다.

카) 내상사유(내향형-상상형-사고형-유연형)

이 유형은 깊이 있는 분석, 언어의 정확성 그리고 독창적인 사고를 좋아한다. 그는 조용하고 논리적이며 정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생각에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주변의 일에는 거의 주의를 기

울이지 않는다. 그는 아이디어와 가능성에 초점을 두면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보다 개발하기를 더 좋아한다. 또 논쟁과 논리, 재치 있는 유머를 즐긴다.

타) 내상사조(내향형-상상형-사고형-조직형)

이 유형은 창의적이고 독립적이며 논리적이고 끈기가 있다. 대체로 조용하지만 확실한 분석적인 능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있는 학생이다. 그는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영감을 따르며 또래나 어른들의 압력에 의해 선택은 하지 않는다.

파) 내실감유(내향형-실제형-감정형-유연형)

이 유형은 조용하게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는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그들을 기쁘게 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목하며 작은 세부사항을 기억한다. 지금 현재 순간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과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 있을 때의 느긋함을 좋아한다. 또 전형적으로 예술적이거나 운동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 내실감조(내향형-실제형-감정형-조직형)

이 유형은 조용하고 성실하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염려하며 훌륭한 친구가 된다.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비평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학생은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가치 있게 여기며 특히 갈등과 심한 경쟁은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자기 주도적이며 혼자 있을 때 상당한 힘을 얻는다. 결정을 내릴 때에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며 주변에 있는 세부사항에 주목하고 상세하게 주목해야하는 과제에 능숙하다. 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생활양식을 좋아하며 예상이 분명한 일과를 선호하며 따라서 완성할 일을 순서에 따라 표를 만들어 이용하기도 한다. 보수적이고 돈을 절약하며 어린 나이에 은행 구좌를 열기도 한다.

거) 내실사유(내향형-실제형-사고형-유연형)

이 유형은 명량하고 상냥하다.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며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모험적인 일을 할지도 모른다. 운동이라 몸을 이용하는 활동을 즐기고 음악과 미술도 좋아한다. 그는 행동으로 가득한 삶을 가진 충동적인 모험 시도자이다. 주변의 일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작은 세부사항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 또 실제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구와 물건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며 수학에 관심이 있다. 이 학생은 노력을 낭비하기 싫어해서 가능한 일을 쉽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몇 시간 동안 집중한다. 그는 아주 좋아하는 일을 제외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유머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너) 내실사조(내향형-실제형-사고형-조직형)

이 유형은 실제적이며 현실적이고 사실을 중요시한다. 논리적이고 예상 가능한 절차와 합리적이고 명백한 기대를 좋아한다. 만약 계획을 바꿀 일이 생긴다면 화를 낼 것이다. 이 학생은 생활이 산뜻하고 조직적인 것을 좋아하며 따라서 방이나 책상, 사물함을 깔끔하게 정리한다. 그는 할 일의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일을 쉽게 결정한다. 주변 환경을 주의 깊고 자세하게 관찰하며 좋은 나쁜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가족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친한 친구들이 그에게 중요하더라도 안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 신체적인 애정표현은 불편해한다(안창규와 Thomas Oakland, 2013, pp. 2-27).

Ⅲ. 아동의 SSI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 분석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초등학교 6학년 남·여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5년 3월부터 2015년 4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모든 연구는 연구대상과의 친밀감 형성과 똑같은 환경을 위해 한 장소를 선정하여 친숙한 상태에서 연구를 하였다. 연구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아동으로 제한시킨 이유는 성격이 형성된 시기이며, 색 선택 시 자신의 시각적 인상을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

(N=30)

구분	성별		합계(명)
	남(명)	여(명)	
초등학교 6학년	17	13	30

SSI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를 조사하기 위해 우선 남·여 아동을 8가지의 성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Ⅲ-2〉 성별에 따른 8가지 성격유형 분류

(N=30)

성격유형 \ 성별	남(%)	여(%)	합계(%)
	외향형	13(44%)	
내향형	4(13%)	1(3%)	

실제형	10(33%)	5(17%)	100%
상상형	7(23%)	8(27%)	
사고형	8(27%)	4(13%)	100%
감정형	9(30%)	9(30%)	
조직형	7(23%)	12(40%)	100%
유연형	10(34%)	1(3%)	

아동의 성별에 따른 8가지 성격유형(외향형-내향형, 실제형-상상형, 사고형-감정형, 조직형-유연형)을 살펴본 결과 남·여 아동 모두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높게 나왔고, 조직형이 유연형보다 더 높게 나왔다.

남·여 아동의 성향을 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실제형, 사고형, 유연형에서 더 높게 조사되었다. 여자 아동은 남자 아동보다 조직형에서 더 높게 조사되었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성격유형검사 - 한국가이던스 SSI 학생유형검사

성격유형검사는 융(Carl Gustav Jung, 1875 - 1961)의 이론을 근거로 SSI(Student Styles Inventory) 학생유형검사이며, 이 도구를 이용하여 성격유형을 파악하였다.

나. 명화도안 선택과 색상 채우기

명화도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아동이 색지로 선호하는 색채를 선택하는 것보다 직접 채색함으로써 선호하는 색채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7가지의 명화를 제시하고 아동이 선호하는 작품의 도안을 직접 선택하여 색상을 채운다. 색상을 채우기 전 명상을 통해 몸을 이완시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이어야 하며, 자유로운 분

위기 속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색상과 도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2색 색연필과 사인펜을 기준으로 선호하는 색을 고르도록 한다.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한 번에 완성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 필요는 없다.

A :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Mona Lisa)'

B : 칸딘스키의 'Color Study of Squares'

C : 고희의 '별이 빛나는 밤'

D : 피카소의 '비둘기를 든 소년'

E : 찰스 데무스의 'Figure Five in Golds'

F : 고희의 '고흐의 방'

G : 뭉크의 '절규'

다. 만다라 도안 선택과 색상 채우기

만다라도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아동이 색지로 선호하는 색채를 선택하는 것보다 직접 채색함으로써 선호하는 색채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융의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만다라는 진정한 자기 발전의 과정, 즉 개성화의 과정이므로 만다라도안을 채색함으로써 아동의 개성인 선호하는 색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5가지의 만다라를 제시하고 아동이 선호하는 작품의 도안을 직접 선택하여 색상을 채운다. 색상을 채우기 전 명상을 통해 몸을 이완시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이어야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색상과 도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2색 색연필과 사인펜 중 한국 전통 색채(오방색)을 기준으로 선호하는 색을 고르도록 한다.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한 번에 완성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 필요는 없다.

A (분열) : 분열의 단계에서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따르고 인내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B (단순, 구성) : 보호하고 제한하는 의미이며, 시작과 없는 영원성을 상징한다.

C (새 생명, 꽃, 보호, 제한) :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가 왔음을 의미한다.

D (낙원, 안전함, 따뜻함) : 개개인의 영혼과 영감, 창조성, 열성 등을 나타낸다. 무수한 잠재력과 경쟁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E (생명, 변화, 화려함, 수확) : 지나치게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을 즐기며 물러날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선현, 2006).

라. 선호 의복 꾸미기

선호 의복 꾸미기를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은 자신의 원하는 의복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호하는 색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의, 하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의복 도안을 제시하고 아동이 선호하는 의복 도안을 직접 선택하여 의복을 꾸미며, 주어진 의복도안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의복을 꾸미기 전 명상을 통해 몸을 이완시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이어야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색상과 도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2색 색연필과 사인펜을 기준으로 선호하는 색을 고르도록 한다.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한 번에 완성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 필요는 없다.

마. 색채 분석 -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프로그램

(1) 개요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 Korea Standard Color Analysis)은 원하는 이미지를 프로그램 내에 삽입하여 색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삽입된 이미지를 모자이크화(1,200개의 블록), 색상 수 감소(8, 16, 32, 52색)를 실행하면 주조색과 이미지 배색띠를 화면 오른쪽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창의 아래 부분에는 추출된 색상들의 정보(색상, 비율 등)와 분포(색상환과 색상면에 표시)를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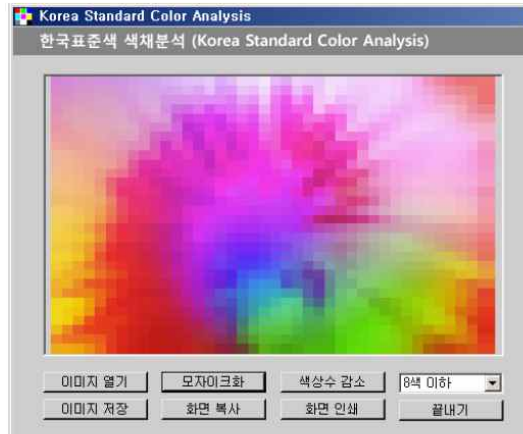
(2) 사용 방법

(가) 이미지 열기

[이미지 열기] 버튼을 눌러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다.

(나) 이미지 모자이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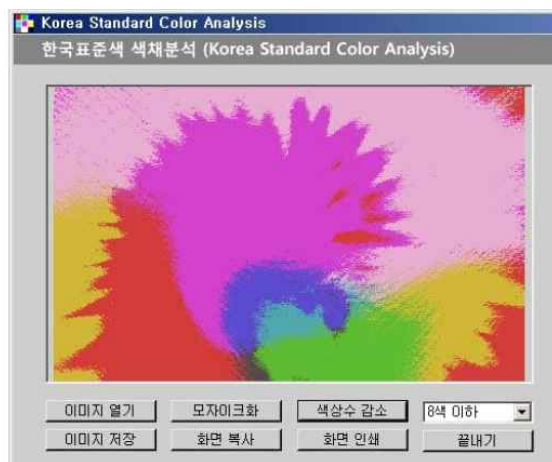
[그림 III-1]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 I



[모자이크화] 버튼을 눌러 픽처박스에 로드된 이미지를 모자이크화한다. 이때 가로로 40등분, 세로로 30등분되어 총 1,200개의 블록으로 이미지가 모자이크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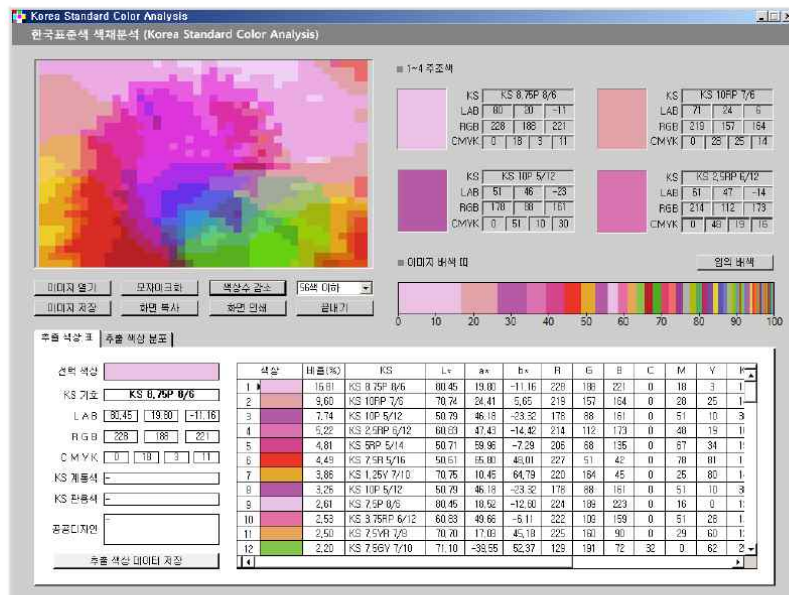
(다) 이미지 색상수 감소

[그림 III-2]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 II



[색상수 감소] 버튼을 눌러 현재 픽처박스에 있는 이미지의 색상수를 감소시킨다. 이미지 색상수 감소는 최초로 이미지를 불러온 후 [색상수 감소] 버튼을 눌러 곧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먼저 모자이크화한 다음에 실행할 수도 있다.

[그림 III-3]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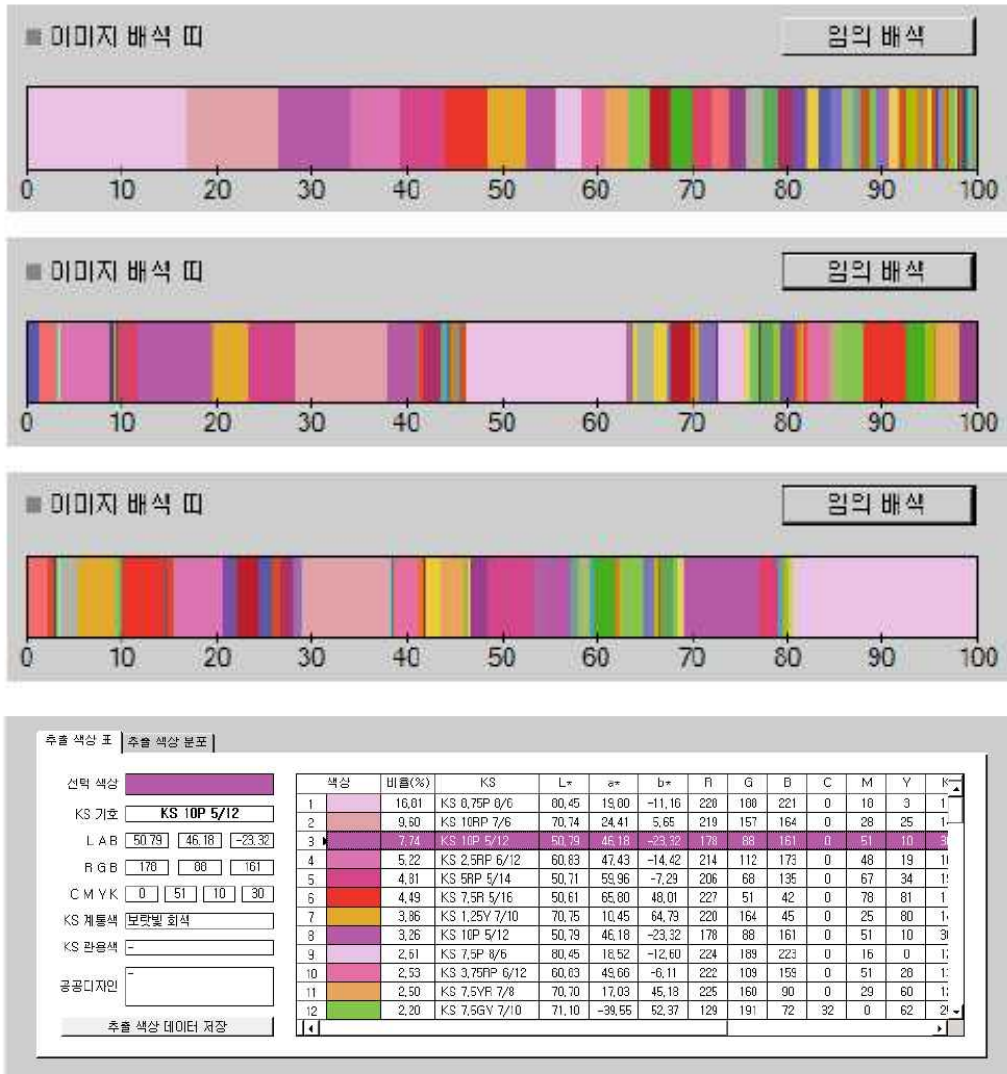


이미지 색상 수 감소 시 감소시킬 색상 수는 [색상 수 감소] 버튼 오른쪽의 드롭다운 콤보박스에서 선택할 수 있다 (8색, 16색, 32색, 56색 네 가지 중 하나). 또한 이미지에서 감소시켜 추출한 색상들의 정보를 프로그램 실행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위 부분에는 이미지에서 추출된 색상 중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부터 네 번째까지의 정보가 표시된다 (KS기호, LAB값, RGB값, CMYK값). 프로그램 창의 가운데 오른쪽 부분에는 이미지에서 추출한 색상을 비율 순으로 나열한 [이미지 배색 띠]가 표시된다.

[이미지 배색 띠] 오른쪽에 있는 [임의 배색] 버튼을 누르면 현재 [이미지 배색 띠]에 나열된 색상들의 순서가 임의로 바뀌어 표시된다.

[그림 III-4]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IV



프로그램 창의 아래 부분에는 추출된 색상들의 정보가 표로 표시된다. 표의 맨 앞 열에는 해당 색상이, 다음에는 그 색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으로 LAB, RGB, CMYK값 등의 정보가 순서대로 표시된다. [추출 색상 표]의 아무 셀이나 클릭하면, 셀이 포함된 가로줄 전체가 해당 색상으로 바뀌면서 표의 왼쪽에 그 색상의 세부 정보가 표시된다.

[그림 III-5]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 V

추출 색상 표
추출 색상 분포

선택 색상

KS 기호 **KS 2.5GY 7/10**

LAB

RGB

CMYK

KS 계통색

KS 관용색

공공디자인

추출 색상 데이터 저장

색상	비율(%)	KS	L*	a*	b*	R	G	B	C	M	Y	K
12	2.20	KS 7.5GY 7/10	71.10	-39.55	52.37	129	191	72	32	0	62	2
13	2.16	KS 6.25R 4/14	40.39	60.30	34.84	187	27	42	0	86	78	2
14	2.15	KS 8.75GY 6/12	61.36	-51.38	56.12	73	168	33	57	0	80	3
15	2.12	KS 10RP 5/14	50.69	61.25	10.29	214	64	106	0	70	50	1
16	1.86	KS 5R 6/12	60.76	50.24	25.31	236	105	105	0	55	56	7
17	1.79	KS 10P 4/12	40.51	46.91	-24.62	150	61	137	0	59	9	4
18	1.79	KS 5GY 7/1	70.88	-3.72	7.10	172	175	160	2	0	9	3
19	1.74	KS 2.5GY 7/10	70.96	-21.52	69.84	170	182	19	7	0	90	2
20	1.55	KS 10GY 6/8	61.29	-31.81	32.42	93	164	88	43	0	46	3
21	1.55	KS 7.5RP 4/12	40.48	53.65	-0.32	171	47	98	0	73	43	3
22	1.47	KS 2.5P 4/12	40.62	34.67	-39.68	117	76	162	28	53	0	3
23	1.30	KS 6.25Y 8/10	60.50	-5.64	71.12	226	200	53	0	12	77	1

추출 색상 표
추출 색상 분포

선택 색상

KS 기호 **KS 5PB 5/12**

LAB

RGB

CMYK

KS 계통색

KS 관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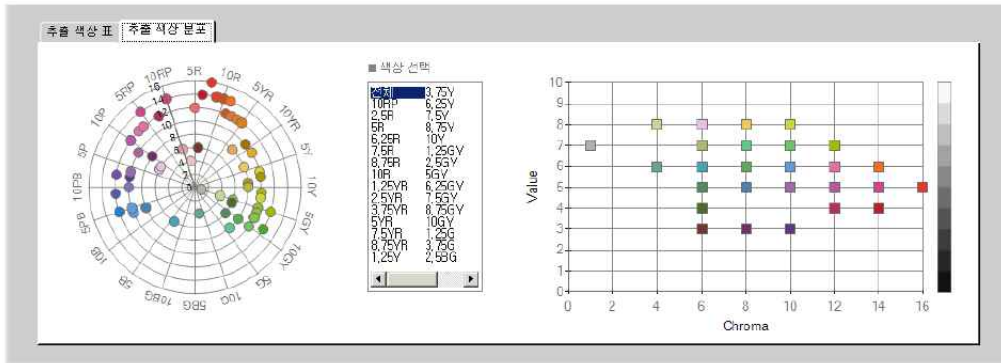
공공디자인

추출 색상 데이터 저장

a*	b*	R	G	B	C	M	Y	K	KS계통색	KS관용색	공공디자인
-13.27	26.85	194	206	149	6	0	28	19	호린 연두	-	-
28.65	14.33	116	51	50	0	56	57	55	-	-	-
42.81	51.95	200	86	29	0	57	86	22	-	-	-
-22.16	32.81	75	105	39	28	0	63	59	-	-	-
34.46	-19.13	109	43	101	0	56	7	57	로라	-	-
-2.31	-31.68	73	126	175	58	26	0	31	-	-	-
1.95	-47.59	33	125	203	84	36	0	20	밝은 파랑	-	지하철부신4호선
-42.08	18.34	92	193	139	52	0	26	24	-	-	-
52.06	56.31	212	74	20	0	65	91	17	밝은 주황	주홍	문화체육관광부
-27.33	17.35	80	134	91	40	0	32	47	-	-	-
0.36	-38.86	94	151	216	56	30	0	15	밝은 파랑	-	-
15.45	5.94	233	189	189	0	19	19	9	호린 분홍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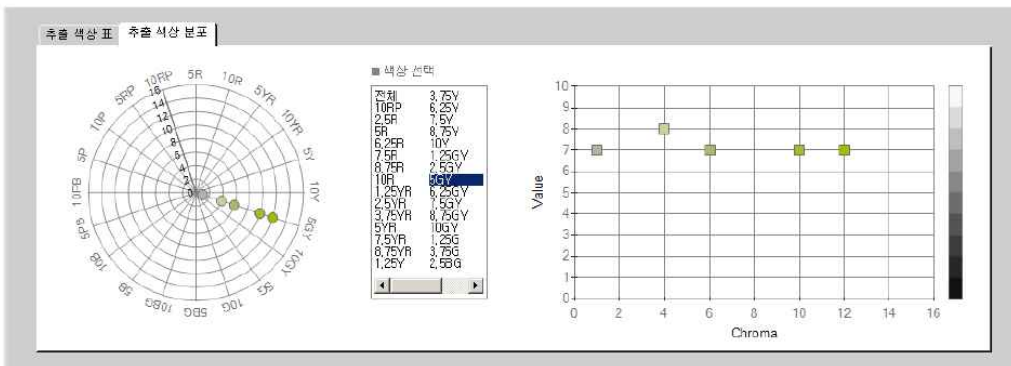
추출된 색상수가 12색이 넘을 때 표 오른쪽의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면 더 많은 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출 색상 표의 아래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추출된 색들의 KS 계통 색명, KS 관용 색명 및 그 색이 어느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공공디자인 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6]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 VI



[추출 색상 분포] 버튼을 누르면 추출된 색상들이 색상환 및 색상면에 표시된 그림들을 볼 수 있다. 두 그림 사이에 있는 [색상 선택] 리스트박스에서 특정 색상을 선택하면 해당 색상면에 어떤 색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7]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설명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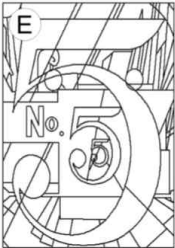



3. 아동의 SSI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 분석 결과

가. 성격유형에 따른 도안선택

(1) 명화 도안

[그림 III-8] 명화도안(김용현, 2012, p. 36)

			
<p>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p>	<p>칸딘스키 'Color Study of Squares'</p>		<p>고흐 '별이 빛나는 밤'</p>
			
<p>피카소 '비둘기를 든 소년'</p>	<p>찰스 데무스 'Figure Five in Golds'</p>	<p>고흐 '고흐의 방'</p>	<p>몽크 '절규'</p>

〈표 III-3〉 외향형-내향형에 따른 명화 도안

(N = 30)

유형	외향형	내향형	전체
A형	1(4%)	0(0%)	1(3%)
B형	0(0%)	1(20%)	1(3%)
C형	5(20%)	1(20%)	6(20%)
D형	3(12%)	2(40%)	5(17%)
E형	5(20%)	0(0%)	5(17%)
F형	9(36%)	1(20%)	10(33%)
G형	2(8%)	0(0%)	2(7%)
합계	25(100%)	5(100%)	30(100%)

〈표 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향형은 명화도안 F형(36%)을, 내향형은 명화도안 D형(40%)을 가장 선호하였다.

〈표 III-4〉 실제형-상상형에 따른 명화도안

(N = 30)

유형	실제형	상상형	전체
A형	1(7%)	0(0%)	1(3%)
B형	1(7%)	0(0%)	1(3%)
C형	4(27%)	2(13%)	6(20%)
D형	2(13%)	3(20%)	5(17%)
E형	2(13%)	3(20%)	5(17%)
F형	5(33%)	5(33%)	10(33%)
G형	0(0%)	2(13%)	2(7%)
합계	15(100%)	15(100%)	30(100%)

〈표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형과 상상형 모두 명화도안 F형(외향형은 33%, 내향형은 33%)을 가장 선호하였다.

〈표 III-5〉 사고형-감정형에 따른 명화도안

(N = 30)

유형	사고형	감정형	전체
A형	1(8%)	0(0%)	1(3%)
B형	1(8%)	0(0%)	1(3%)
C형	1(8%)	5(28%)	6(20%)
D형	2(17%)	3(17%)	5(17%)
E형	3(25%)	2(11%)	5(17%)
F형	4(33%)	6(33%)	10(33%)
G형	0(0%)	2(11%)	2(7%)
합계	12(100%)	18(100%)	30(100%)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형과 감정형 모두 명화도안 F형(외향형은 33%, 내향형은 33%)을 가장 선호하였다.

〈표 III-6〉 조직형-유연형에 따른 명화도안

(N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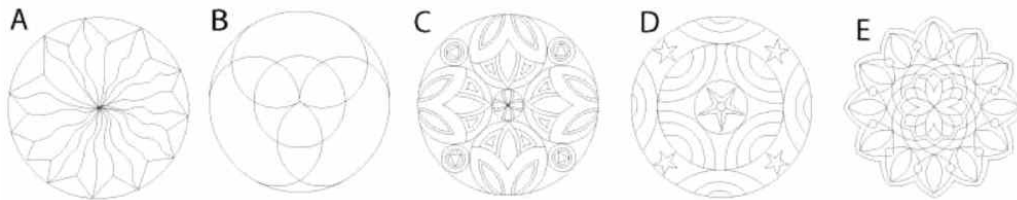
유형	조직형	유연형	전체
A형	1(5%)	0(0%)	1(3%)
B형	1(5%)	0(0%)	1(3%)
C형	3(16%)	3(27%)	6(20%)
D형	1(5%)	4(36%)	5(17%)
E형	3(16%)	2(18%)	5(17%)
F형	8(42%)	2(18%)	10(33%)
G형	2(11%)	0(0%)	2(7%)
합계	19(100%)	11(100%)	30(100%)

〈표 I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형은 명화도안 F형(42%)을, 유연형은 명화도안 D형(36%)을 가장 선호하였다.

〈표 III-3〉, 〈표 III-4〉, 〈표 III-5〉, 〈표 I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인원이 선호하는 명화도안은 F형(고흐의 방)이며 외향형(36%)과 조직형(42%)이 명화도안 F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2) 만다라 도안

[그림 III-9] 만다라도안



A (분열) : 분열의 단계에서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따르고 인내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B (단순, 구성) : 보호하고 제한하는 의미이며, 시작과 없는 영원성을 상징한다.

C (새 생명, 꽃, 보호, 제한) :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가 왔음을 의미한다.

D (낙원, 안전함, 따뜻함) : 개개인의 영혼과 영감, 창조성, 열성 등을 나타낸다. 무수한 잠재력과 경쟁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E (생명, 변화, 화려함, 수확) : 지나치게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을 즐기며 물러날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선현, 2006).

〈표 Ⅲ-7〉 외향형-내향형에 따른 만다라도안

(N = 30)

유형	외향형(%)	내향형(%)	전체(%)
A형	2(8%)	1(20%)	3(10%)
B형	4(16%)	1(20%)	5(17%)
C형	6(24%)	0(0%)	6(20%)
D형	4(16%)	1(20%)	5(17%)
E형	9(36%)	2(40%)	11(36%)
합계	25(100%)	5(100%)	30(100%)

〈표 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향형과 내향형 모두 만다라도안 E형(외향형은 36%, 내향형은 40%)을 선호하였다.

〈표 Ⅲ-8〉 실제형-상상형에 따른 만다라도안

(N = 30)

유형	실제형	상상형	전체
A형	3(22%)	0(0%)	3(10%)
B형	2(14%)	3(19%)	5(17%)
C형	0(0%)	6(37%)	6(20%)
D형	2(14%)	3(19%)	5(17%)
E형	7(50%)	4(25%)	11(36%)
합계	14(100%)	16(100%)	30(100%)

〈표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형은 만다라도안 E형(50%)을, 상상형은 만다라도안 C형(37%)을 가장 선호하였다.

〈표 III-9〉 사고형-감정형에 따른 만다라도안

(N = 30)

유형	사고형	감정형	전체
A형	2(18%)	1(5%)	3(10%)
B형	2(18%)	3(16%)	5(17%)
C형	2(18%)	4(21%)	6(20%)
D형	1(9%)	4(21%)	5(17%)
E형	4(37%)	7(37%)	11(36%)
합계	11(100%)	19(100%)	30(100%)

〈표 I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형과 감정형 모두 만다라도안 E형(사고형은 37%, 감정형은 7%)을 가장 선호하였다.

〈표 III-10〉 조직형-유연형에 따른 만다라도안

(N = 30)

유형	조직형	유연형	전체
A형	2(11%)	1(9%)	3(10%)
B형	3(15%)	2(18%)	5(17%)
C형	2(11%)	4(37%)	6(20%)
D형	2(11%)	3(27%)	5(17%)
E형	10(52%)	1(9%)	11(36%)
합계	19(100%)	11(100%)	30(100%)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형은 만다라도안 E형(52%)을 유연형은 만다라도안 C형(37%)을 가장 선호하였다.

〈표 III-7〉, 〈표 III-8〉, 〈표 III-9〉,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인원이 선호하는 만다라도안은 E형(생명, 변화, 화려함, 수확)이며 실제형(50%)과 조직형(52%)이 만다라도안 E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나.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 결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SSI 성격유형에 따라 색채 선호가 어떻게 분포되며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아동 개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해석하고 예언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격유형과 색채 선호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색채 선호 결과 분석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색채 선호 결과는 다음의 <표 III-11>와 같다.

<표 III-11>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색채 선호 결과

순위	성별	남	여
	1		파랑
2		무채색	노랑
3		노랑	자주

첫째,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아동은 파랑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는 무채색, 노랑 계열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여자 아동도 파랑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는 노랑, 자주 계열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색채는 파랑과 노랑으로 나왔다. 이는 파랑과 노랑이 전체 아동들에게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선호하는 색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남자 아동들이 선호하는 색 중 무채색 계열이 선호 색으로 포함된 점과 여자 아동들이 선호하는 색 중 자주색이 선택된 점 등은 예전 선행 연구 결과에서 보여 졌던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전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무채색과 자주색은 초등학교 아동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이 아니었지만, 요즘 초등학교 아동들에게는 무채색과 자주색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 8가지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성별에 따른 8가지 성격유형(외향형-내향형, 실제형-상상형, 사고형-감정형, 조직형-유연형)을 살펴본 결과 남·여 아동 모두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높게 나왔고, 조직형이 유연형보다 더 높게 나왔다. 남·여 아동의 성향을 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실제형, 사고형, 유연형에서 더 높게 나왔으며, 여자 아동은 남자 아동보다 조직형에서 더 높게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최근 남·여 아동 모두 활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에 비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좀 더 높다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 구분 없이 조직형이 유연형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이는 점에서 자유로움보다는 조직 안에서 계획된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조직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아동교육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8가지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 결과는 다음의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8가지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 결과

성격유형	성별	
	남	여
외향형 (개인의 에너지가 외부로 향함)	파랑·무채색 ·노랑	파랑·노랑·자주
내향형 (개인의 에너지가 내부로 향함)	파랑	-
실제형 (사실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초점)	파랑	파랑·노랑
상상형 (이론 및 포괄적인 사항에 초점)	파랑·무채색 ·빨강	-
사고형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결정)	파랑·무채색	파랑

감정형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결정)	파랑·노랑	파랑·노랑
조직형 (생활에서 구조와 조직을 부여함)	파랑·노랑	파랑·노랑·자주
유연형 (생활에서 자유로움과 융통성을 가짐)	파랑·무채색	-

(-는 고른 분포도에 대한 표시임)

8가지 성격유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향형 아동의 경우 남자 아동은 파랑, 무채색, 노랑을, 여자 아동은 파랑, 노랑, 자주를 가장 선호하였다.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 모두 파랑과 노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남자 아동은 무채색, 여자 아동은 자주에서 좀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외향형 아동의 경우 파랑을 제외한다면 중성색 계열(무채색, 자주)과 난색 계열(노랑)을 선호하였다.

내향형 아동은 외향형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아 특정 색에 대한 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자 아동이 파랑에 대한 선호 경향이 나타났다. 즉 내향형 남자 아동은 한색계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외향형과 내향형 아동을 비교해보면 개인의 에너지와 초점이 외부로 향할수록 대체적으로 한색, 난색, 중성색의 다양한 계열의 색채를 선호하고, 에너지를 받고 내부에 집중시키는 성향일수록 한색 계열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형 아동의 경우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에 비해 좀 더 뚜렷한 색 선호를 보이고 있다. 실제형 아동의 선호색으로 남·여 아동 모두 파랑에 선호를 보이고 있다.

상상형 아동의 경우 여자 아동은 뚜렷한 색 선호가 없었지만, 남자 아동은 파랑, 무채색, 빨강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상형 아동이 한색 계열, 무채색 계열, 난색 계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형과 상상형 아동을 비교해보면 사실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는 아동일수록 한색 계열(파랑)을 선호하며, 이론 및 포괄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아동일수록 난색, 한색, 무채색의 다양한 색채를 두루두루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형 남자 아동은 여자 아동에 비해 좀 더 뚜렷한 색 선호 경향을 보인다. 사고형 남자 아동은 파랑과 무채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한색 계열과 무채색에 대한 선호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형 아동의 색 선호 경향은 남·여 아동 모두 파랑과 노랑으로 보여진다. 이는 감정형 아동은 특정색 파랑을 제외하면 난색계열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형과 감정형 아동을 비교해보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아동일수록 파랑과 무채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아동일수록 난색 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 아동의 경우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뚜렷한 색 선호 경향을 보인다. 조직형 남자 아동은 파랑, 노랑을 선호하며, 여자 아동은 파랑, 노랑, 자주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조직형 남·여 아동 모두 선호하는 색의 경향이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연형 아동의 경우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뚜렷한 색 선호 경향이 나타났다. 남자 아동은 파랑과 무채색에 대한 선호를 보이고 있다.

조직형과 유연형 아동을 비교해보면 생활 속에서 구조와 조직을 부여하기를 좋아하는 아동일수록 난색 계열(노랑)과 중성색(자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에서 자유로움과 융통성을 가지려고 하는 아동일수록 무채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6가지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각 성격유형별 분포되어 있는 아동의 비중이 높지 않아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기에 분석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IV. 결론

본 논문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에게 성격검사와 색채 선호를 파악하는 명화, 만다라, 의복 작품을 분석한 자료로서 성별, 학년, 환경 등의 여러 면에서 고려하여 성격유형과 색채 선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환경이 제한되어 많은 한계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 부분이 이번 연구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아동들 각 개인마다 서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색채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여 아동의 정서적인 면을 분석하기가 최초 예상보다 매우 난해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색채 선호 결과, 남자 아동은 파랑, 무채색, 노랑을, 여자 아동은 파랑, 노랑, 자주를 가장 두드러지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성별의 구분 없이 거의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색상은 파랑으로 나타났다.

먼저 8가지 성격유형과 색채 선호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외향형과 내향형 아동의 관계에서, 개인의 에너지와 초점이 외부로 향하는 외향형의 아동일수록 대체로 파랑, 노랑, 무채색, 자주를 선호하고, 에너지를 받고 내부에 집중시키는 내향형 아동일수록 파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체형과 상상형 아동의 관계에서는 사실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집중하는 실체형 아동일수록 파랑과 노랑을 선호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좋아하거나 이론 및 포괄적인 사항들에 집중하는 상상형 아동일수록 파랑, 무채색, 빨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형과 감정형 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사고형 아동일수록 파랑과 무채색을 선호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감정형 아동일수록 파랑과 노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과 유연형 아동의 관계에서는 생활 속에서 구조와 조직을 부여하기를 좋아하는 조직형 아동일수록 파랑과 노랑, 자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에서 자유로움과 융통성을 가지려고 하는 유연형 아동일수록 파랑과 무채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은 성별에 따른 색채 선호에 차이가 있었고 성격유형과 색채 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색채 선호 경향은 한색 계열과 중성색 계열이었으며 이는 성격유형과의 관계 연구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아동이 즐겨 사용하는 색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색채 심리 분석의 내용과 현대 아동의 행동 특성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시대적 환경과 학습경험 등의 외적요인이 아동의 색채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본 논문의 주제인 성격유형과 아동의 색채 선호와의 관계성은 아동미술교육 및 아동미술의 올바른 이해와 지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성격 또는 심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의식의 세계와 대립되는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아동의 미술표현이 보다 폭넓은 심리와 정신세계를 표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의 미술표현을 통해 나타난 그들의 심리와 정신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의 방향은 아동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볼 때, 외부로부터 이해하려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해하려는 태도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은 외부로부터 오는 사회적 욕구와 내면으로부터 오는 아동의 욕구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그 방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듯 내부와 외부의 요구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교육에 있어서, 아동의 미술을 내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현대 미술교육을 재인식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인간의 성격은 사고, 감정, 태도, 동기와 한 맥락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인간의 성격은 분리된 기능으로 존재하지 않고 복합된 하나로 존재하고 작용한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인 것, 즉 내면의 심리와 정신세계를 교정한다면 인격의 분열 현상이 심각한 현대사회 및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다.

넷째, 인격의 분열 현상에서 왜곡된 인격과 행동은 태어나서부터 아동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형성되고 고착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올바른 아동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하므로, 새롭게 태어나 자라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바람직하게 지도하는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성격 및 심리가 색채 선호에 투영되며 둘 사이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동의 성격과 심리가 그대로 화면에 100% 반영된다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화면에 나타난 표현은 우리의 감정표현이 가능한 종이와 색채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은 우리의 지능과 기능에 의해 재조작 되기 때문에 화면의 나타난 표현은 우리의 내면의 심리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색채 선호는 그들의 내면세계의 독자적인 패턴이기보다는 그를 둘러싼 외부적인 문화의 영향이 크다. 태어나면서부터 상당한 부분이 자신 외의 타인 및 환경 조건에 의해 지배되며, 특히 TV를 보며 자라나는 요즘의 아동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를 하면서 선호 의복의 색채 선호의 경향은 아동들의 선호하는 색채도 있었지만 선호하는 연예인이 입을 의복이기에 그에 따른 색채를 선호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이 점에서 아동의 색채 선호를 아동의 내면세계의 자율성만으로 반영하여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셋째, 화면 위의 어떤 색채를 통해 한 아동의 전체를 파악하려는 점은 과장될 우려가 있다. 색채 선호를 통해 전체와의 관련을 유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분의 분석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온전한 아동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성격과 색채 선호와의 관계를 법칙으로 묶어 보려는 도식화에 빠지게 된다는 우려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아동은 난색 계열을 선호하고, 내향적인 아동은 한색 계열을 선호한다는 것은 도식적, 비약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을 비롯하여 인간은 복잡다양하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도식으로 결코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지극히 하나의 작은 단면만을 가지고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의 미적 표현의 이해에 있어서 도식적, 부분적 접근을 가급적 삼가야 한다.

넷째, 본 연구를 진행하며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문제는 어떤 색채를 좋아하다가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싫증을 느껴 다른 색채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아동의 '반대색 산출과정'(처음에 좋아했던 색과는 정반대의 색을 좋아하는 현상) 때문에 호(好), 불호(不好)의 감정도 바뀐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색이 칠해진 면을 보게 되면 그 후에는 곧바로 흰색 면을 보려는 행동에서 알 수 있다. 성격이 활발한 아동이 붉은색 계통의 환경에 있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반대로 푸른색을 요청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자주 먹으면 곧 권태를 느끼는 것처럼 좋아하는 색채는 끝까지 좋을 수는 없으며 변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어떤 색채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으로 아동의 성격을 파악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호 색채의 변화를 고려해본다면 대략 100-150매 정도의 작품에서 관찰하고 연구해야 성격과 색채 선호와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초등학교 6학년 30명의 아동들을 8가지 성격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성격유형 분포도가 고르지 않아 인원수의 제약에 따른 한계점을 가진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의 성격과 색채 선호와의 관계를 찾으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적은 수의 작품과 표본 아동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아동 전체의 색채심리를 평가하는 일은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연령별, 성별, 학교별로 구분하여 전국의 시·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 실시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와의 관계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지 못하였지만, 본 연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아동 색채심리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 김선현. (2006). **임상미술치료의 이해**. 학지사
- 김재은. (1998).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교육과학사.
- 김정. (1990). **아동의 미술 교육 연구**. 창지사.
- 노안영, 강영신. (2003). **성격심리학**. 학지사.
- 문은배. (2011). **색채디자인 교과서**. 안그래픽스.
- 안창규 & Thomas Oakland. (2013). **SSI 학생유형검사 지침서**. 한국가이
던스.
- 윤일주. (1978). **색채학 입문**. 민음사
- 차동채, 김춘일. (2000). **아동미술의 지도와 이해**. 미진사.
- 하용득. (1989).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 한국색채연구소. (2006). **아동색채교육**. 미진사.
- Berry, R. (2004). **30분에 읽는 응**. 랜덤하우스코리아.
- Cohen, E. P. & Gainer, R. S. (1998). **아동미술교육의 실제**. 미진사.
- Goethe, J. W. (2003). **색채론**. 민음사.
- Lowenfeld, V. & Brittain, W. L. (1998).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 Steiner, R. (2014). **색채의 본질**. 물병자리.
- 권영경. (2004). **초등학교 아동의 색채선호에 따른 심리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길태화. (2001). **아동의 색채 선호도와 색 연상에 관한 조사 연구**. 대구카톨릭대
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현. (2012).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도와 그림의 색채분석을 통한 심리
유형**. CHA 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 박경숙. (2002). **놀이를 통한 색채 감수성 신장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
육대학원.
- 박은덕. (1990). **우리나라 소비자 제품의 색채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산
업미술대학원.

- 박지현. (2011). **미취학 아동의 색채 선호 및 색채 표현을 통한 성향 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영숙. (1991). **국민학교 아동의 색채심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진숙. (2004). **아동의 부모-자녀관계와 색채선호 및 색채연상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황민순. (2001). **아동화의 발달단계별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87>

EnchantedLearning.com®. Enchanted Learning

<http://www.enchantedlearning.com/>

Lowenfeld, V. & Brittain, W. L. (1987). *Creative and mental growth*. PrenticeHall.

A B S T R A C T *

A Study on Color Preference According to SSI Personality Types of Children - for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

Jin, Yeong Ji

Major in Elementary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Kyoung Sik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of children and their color preference. Color choice is an important means of expressing subconscious thoughts and feelings for children. Color affects people's psychology and emotion, and in particular it has a great relevance with children's holistic development. Although it has been identified that color and personality have a significant relevance and research on color psychology has gained importance, studies on various personality types are still scant.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a color study according to children's various personality types as this matter is not only an individual issue but a social issue as well.

In this study SSI personality type test was administered to sixth grade male and female students of Halla Elementary School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identify various personality types and analyze preferred color according to each categorized personality type. Sixth grade student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because it was assumed that the children in this period of development have their personality developed and that their cognition and conception are formed to some degree. The subjects were categorized into various personality types and the children's preference towards color was investigated by comparing to existing studie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a direction for an effective art education.

The color preference results of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wed that the boys preferred blue, achromatic color, and yellow, while the girls preferred blue, yellow, and plum. Moreover, blue and yellow were preferred by almost all the subjects, regardless of their gender.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preferred color was analyzed with color preference tendency according to eight personality types.

Extroverted children, who get their energy and focus their attention externally, generally preferred various colors, including blue, no color, yellow, plum. Introverted children, who get their energy and focus their energy internally, preferred blue.

Practical type children, who focus on facts and details, preferred yellow. Imaginative type children, who favor providing ideas or focus on theories and comprehensive matters, preferred blue, achromatic color, and red.

Thinking type children, who make decision based on logical and objective criteria, preferred blue and achromatic color. Feeling type children, who make decision based on individual and subjective criteria, preferred blue and yellow.

Organized type children, who favor assigning structures and groups, showed a greater preference to blue, yellow, and plum, and flexible type children, who tend to have more freedom and flexibility, preferred blue and achromatic color.

As described above, there was a difference in color preference depending on gender for the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 correlation between color preference and personality type. The results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sonality type and color preference and suggest that a child's preferred color can be used as a baseline data in analyzing and predicting the child's behavior. However, a more important matter is to identify the reasons underlying these differences. Thus, follow-up studies are necessary to essentially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color preference.

Keywords: color, color preference, color psychology, personality type, SSI personality type test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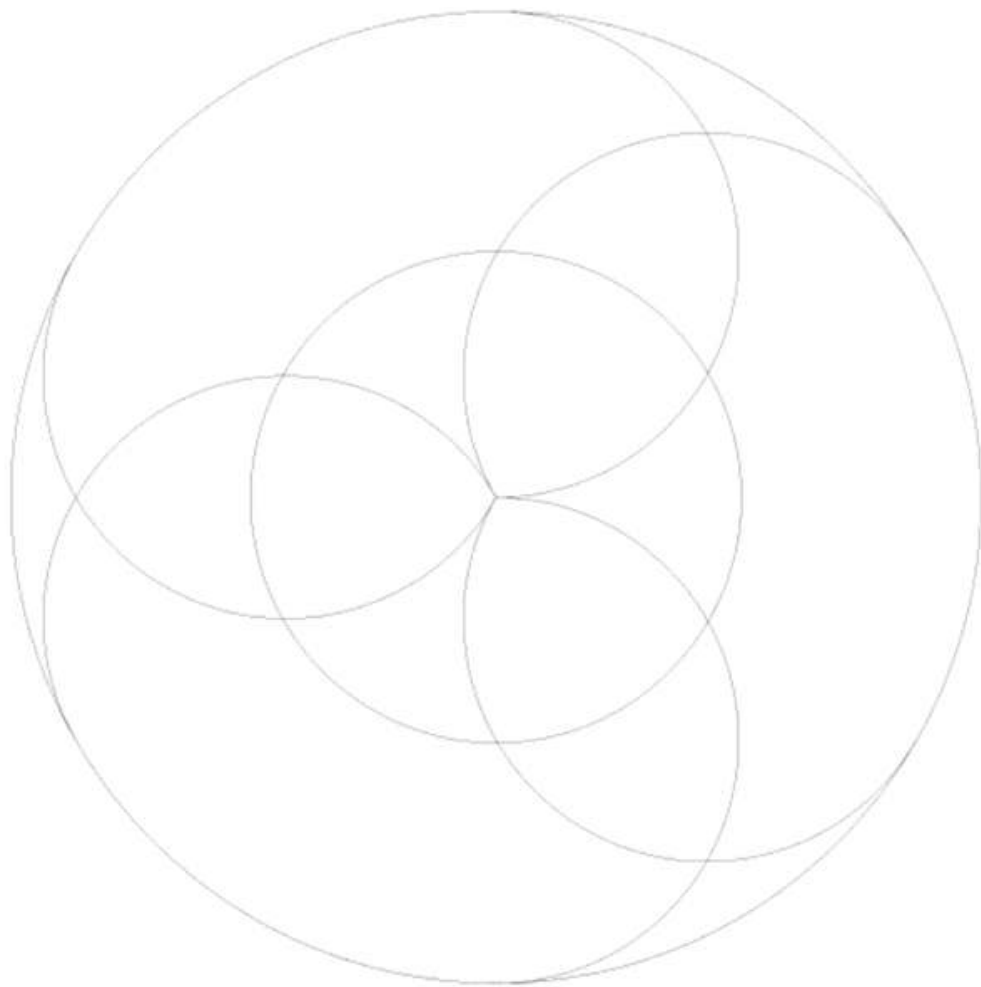
[부록 1] 만다라 도안

[부록 2] 명화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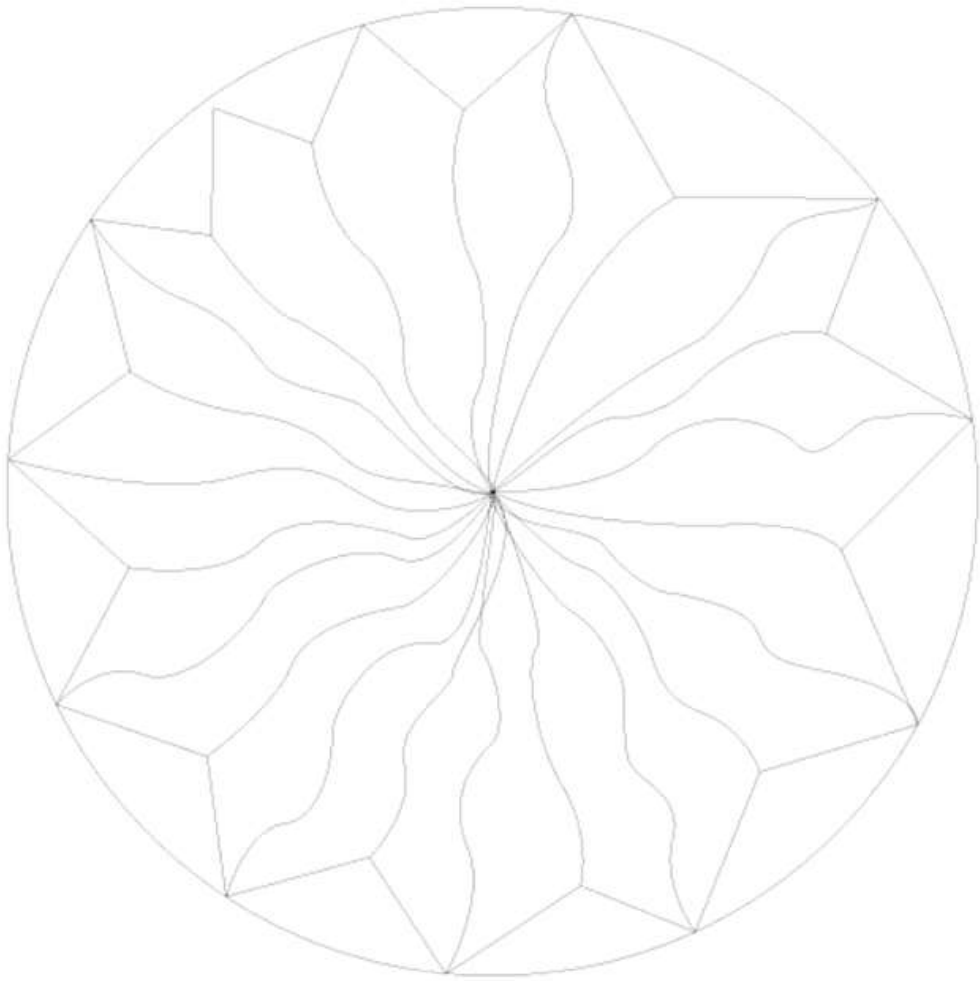
[부록 3] 의복꾸미기 도안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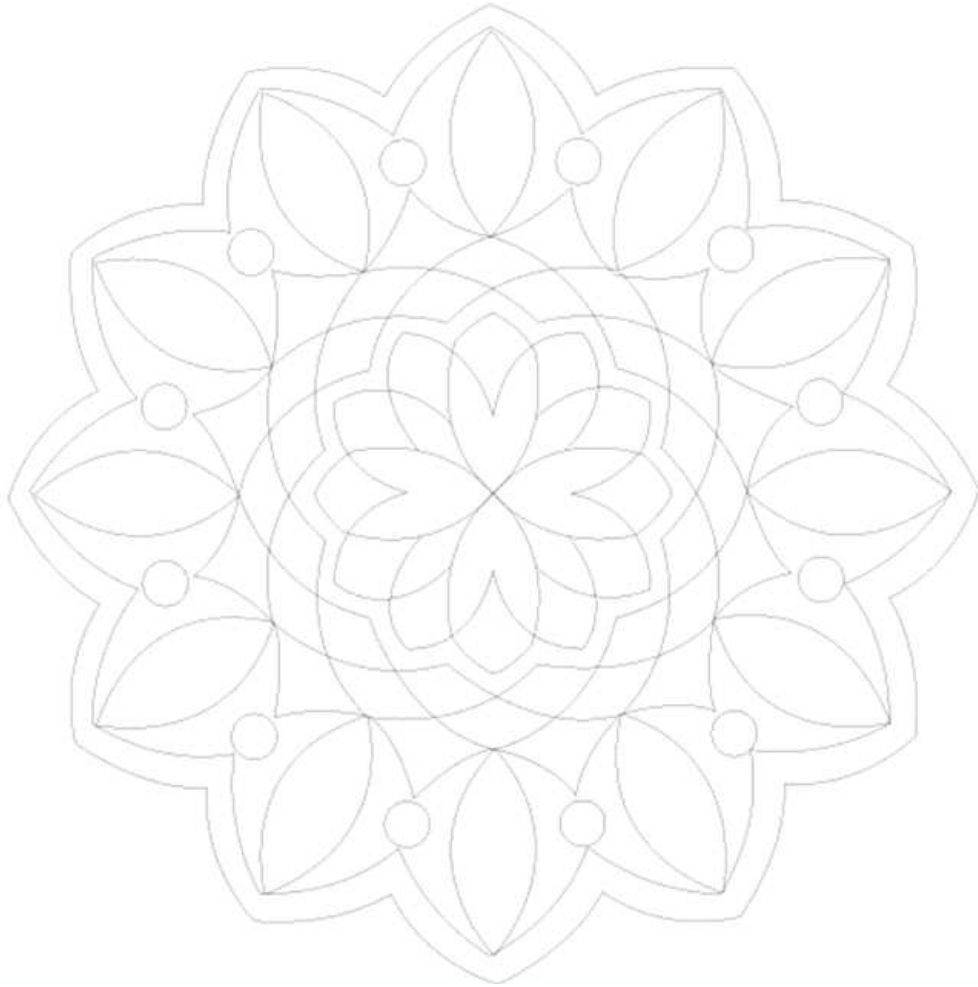
만다라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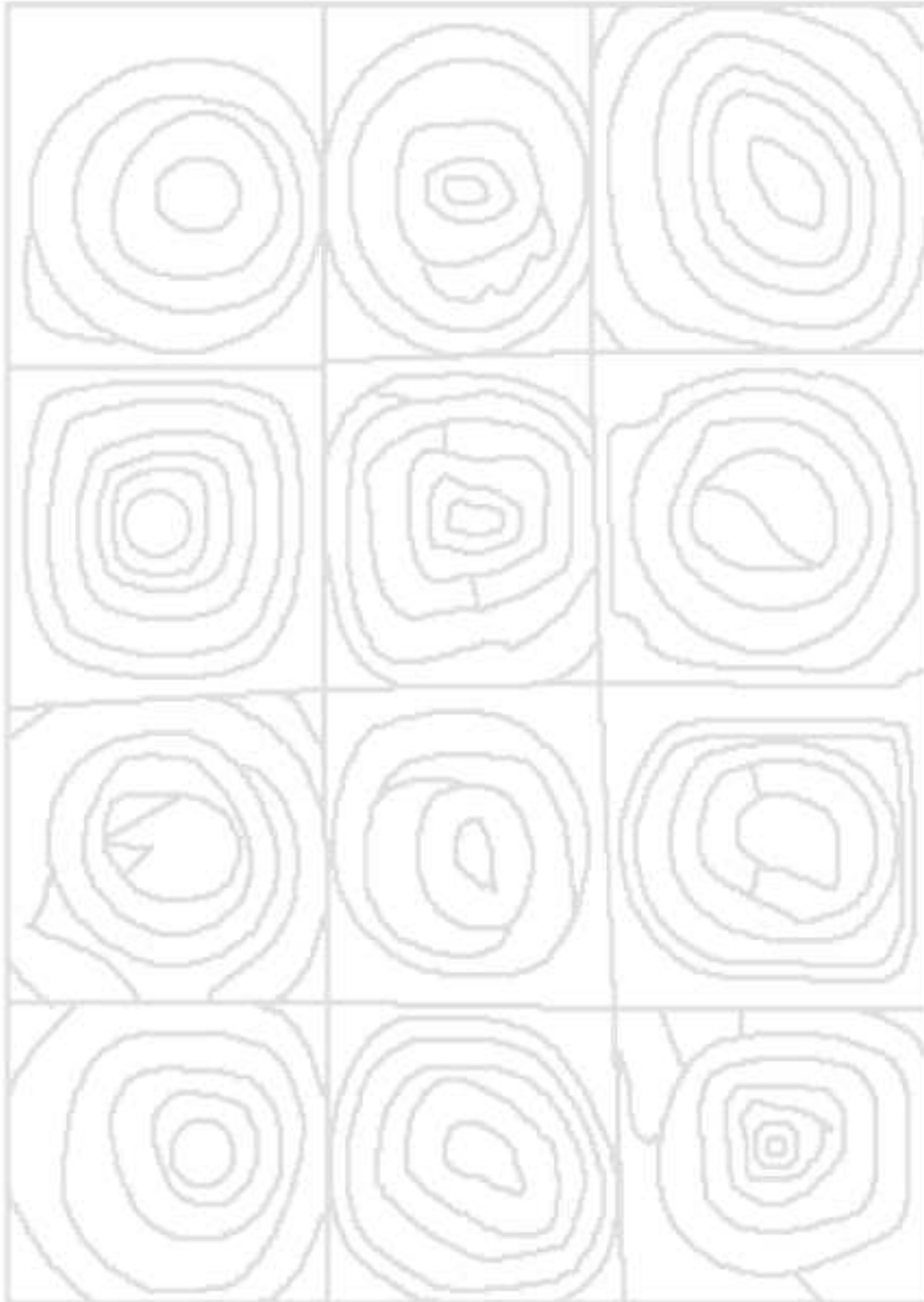


출처: 김용현. (2012).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도와 그림의 색채분석을 통한 심리유형. CHA 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부록 2]

명화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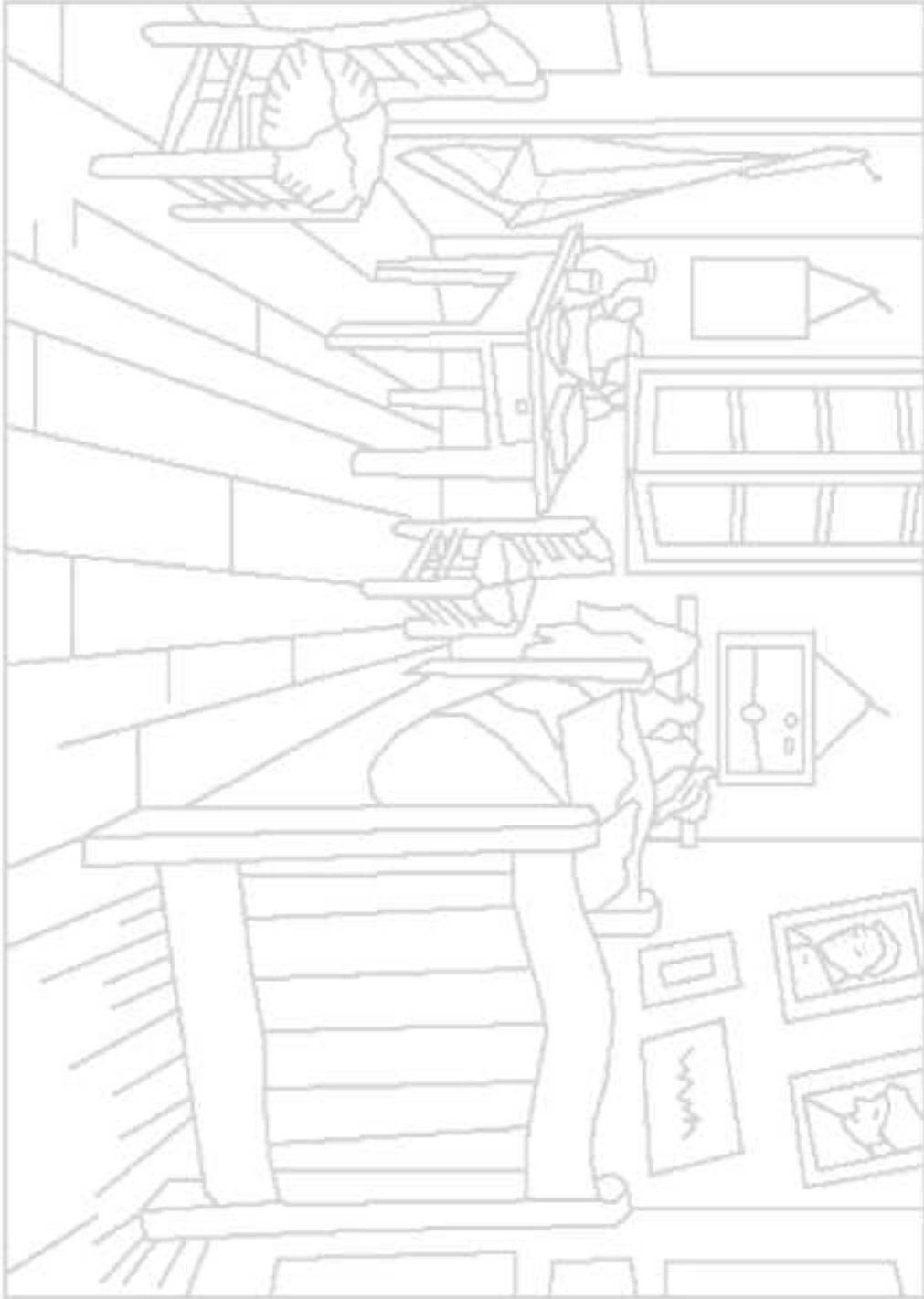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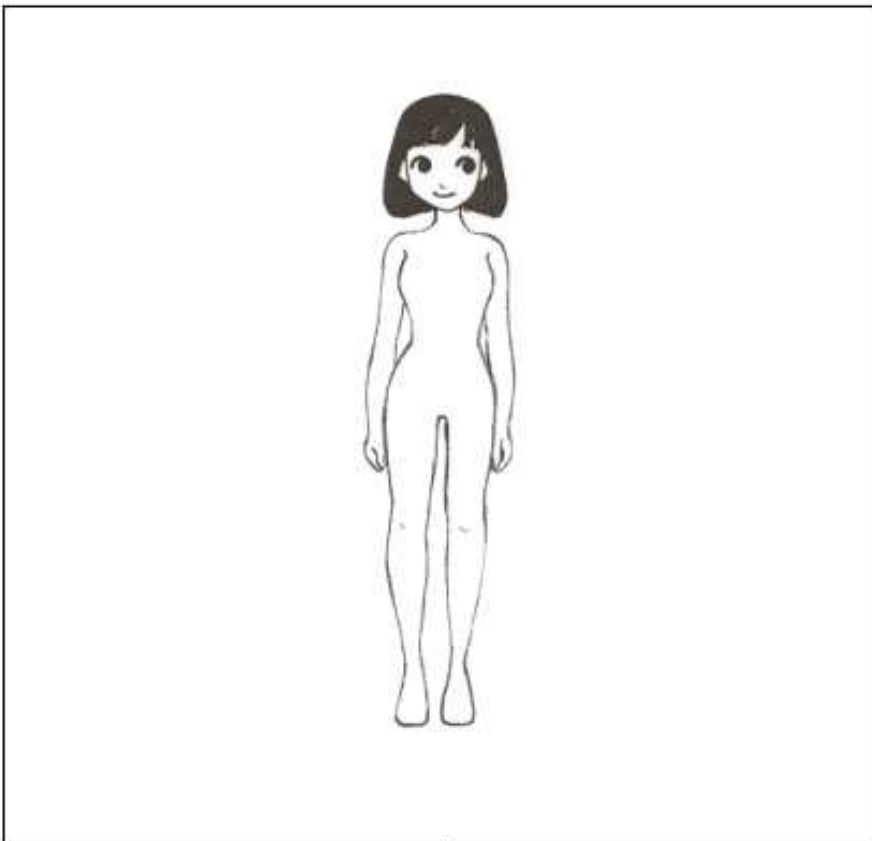
출처 : 김용현. (2012).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선호도와 그림의 색채분석을 통한 심리유형. CHA 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http://www.enchantedlearning.com/>

[부록 3]

의복 꾸미기 학습지

미술	내가 입고 싶은 (좋아하는) 옷 꾸미기
----	-------------------------

학년 반 번 이름:



☺ 이 옷을 선택한 이유 <small>[자세하게 적어주세요]</small>	☺ 이 색을 선택한 이유 <small>[자세하게 적어주세요]</small>

미술

내가 입고 싶은 (좋아하는) 옷 꾸미기

학년 반 번 이름:



☺ 이 옷을 선택한 이유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 이 색을 선택한 이유
[자세하게 적어주세요]